



IBK기업은행은 희망배달부입니다

기업과 국민 모두의 희망을 키워온 평생은행 IBK기업은행이
오늘도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 희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여성시대

양희은 · 서경석입니다

이달의 편지
 아버지와 라디오 그리고 나 외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사과밭 아이들

2015 September **09**





이등 수단의 혁명을 가져온 원의 발명



모바일 금융의 기준을 바꾸는 원의 발명



Real Mobile Bank i-ONE뱅크

스마트 금융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은행의 발명! Real 모바일 은행 i-ONE뱅크와 만나면 편리한 은행 업무부터 전문적인 금융서비스까지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금융거래

모바일에서 바로
가입하는 금융상품

자산설계부터 지출관리까지
도와주는 금융메니지먼트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준법감리인 심우필 제2015-1403호(2015.06.0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개별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해결규약에 해감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유흥장점 위반 사안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04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1
사과밭 아이들

10 이달의 편지
아버지와 라디오 그리고 나 외

6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사)한국항공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창로 상근부회장

76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서 2
굽이굽이 펼쳐진 지리산둘레길을 걷다

82 코너 속 편지
19년 전 권 병장과 펜팔 외

104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부모와 아이의 성

108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나도 모르는 나

110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참 좋다

112 행복한 책 읽기
《음식의 언어》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15년 9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광환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이한재, 서미란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발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59 주소 (121-904)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최승미 월간지(비매출)

* 본지는 한국도서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위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91.3 전주 101.7/94.3 마산 98.9 춘천 92.3/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92.7 충주 96.1 삼척 101.5/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사과밭 아이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최선영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에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선홍, 준홍, 진홍, 채홍 4형제의 어머니 최선영 씨는 이제 귀농 2년차 주부다. 시아버지가 40여 년 꾸려 오신 사과농장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다. 서른세 살 동갑내기 부부는 요즘 새벽이면 사과밭으로 달려간다. 푸르른 여름사과인 '아오리'가 끝이 나고 지금은 가을빛을 담은 붉디붉은 사과인 '홍로'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다.

아들 넷에 사과밭까지 건사하느라 얼마나 분주할지 눈에 선하다. 하지만 최선영 씨는 의외로 의연했다.

“호호호, 다들 아들 넷 키우기 힘들지 않냐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큰아들 선홍이가 지금 일곱 살이고, 둘째가 네 살, 셋째가 세 살, 막내는 이제 막 백일이 지났어요. 애를 하나만 키우는 집 엄마들은 그 아이 하나 돌보느라 온갖 신경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여럿을 키우다보면 정말 큰아이가 둘째를 둘째가 셋째를 책임져요. 우리 집 아이들 걸레 하나씩 손에 들려주면 방바닥 청소는 물론이고, 설거지까지 해요. 더군다나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으니 시어른과 저희 부부 네 명에서 네 명 아이들 하나씩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이제 막 백일이 지난 채홍이는 시어머니 차지로 우유 먹고 안아주면 새근새근 잠을 잘 잔다.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장난꾸러기 셋째는 선영 씨 차지, 의젓한 할아버지 바라기 둘째는 할아버지가, 큰아들은 남편이 전담 마크다.

아이들을 사이좋게 나누어 보는 것처럼 집안일도 농장일도 제각기 역할이 자연스럽게 정해져 버렸다. 시아버지 윤영노 씨는 농장일을 진두지휘하고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남편인 윤범진 씨는 사과가꾸는 일을, 선영 씨는 남편 일과 시어머니의 일을 보조하고 있다.

사실 남편 윤범진 씨는 어려서부터 사과농사는 절대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대를 이어 내려온 사과농사는 어린 눈에도 참으로 힘겨워 보였다. 새벽에 사과밭에 나가 밤중에 들어오고, 일 년 내내 휴일 한번 없이 사는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에 다녀보니 직장생활이라는 게 별 볼일 있는 게 아니었다. 앞으

로 어찌 살아야 하나 고민을 시작할 시점에 아버지의 호출이 있었다.
 “내가 나이가 먹으며 점점 농사일이 힘들어지니 네가 맡아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남편은 망설이는 데 아내인 선영 씨가 먼저 손을 들고 나섰다.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어찌면 농사일이 나올 수 있겠다 싶었다. 시댁에 들어와 사는 일도 주저함이 없었다. 이미 고등학교 적부터 드나들었던 편안함이 아직도 남아있다.

선영 씨와 범진 씨는 고등학교 적부터 친구였다. 그렇다고 그때부터 연애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남자사라친구, 여자사라친구로 지냈다. 가끔 친구들 무리에 섞여 서로의 집을 갔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어 결혼에 이르렀다.

웃는 인상의 사람 좋은 선영 씨는 시부모님께 살갑다. 입에 늘 ‘올 아버지, 올 어머니’가 배어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시아버지는 며느리 앞에서 늘 웃음을 물고 계신다. 아들 쑥쑥 잘 낳고, 농사까지 짓겠다고 손들고 나선 며느리니 안 예쁠 수가 없다. 며느





리가 사달라는 건 뭐든 사주는 시아버지다.

“아버지, 나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요” 하면 “오냐” 하며 이미 차에 시동 걸고 계시는 분이다. 선영 씨가 입고 있는 작업복이며 꽃무늬 장화는 시아버지가 장에 나가 사다주신 것들이다.

평생 사과농사로 허리며 다리, 팔이 불편한 시어머니도 며느리 불편할까 싶어 늘 노심초사다. 저녁에 사과밭에서 들어오는 며느리 편 하라고 밥도 미리 지어 놓고 아이들도 일찌감치 씻겨 놓는 시어머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한 마음을 포개 놓고 살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고부갈등은 없다.

동네에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가 들어오니 마을에서는 다들 부러움에 한마디씩 한다. “아이고 좋겠어. 집에 사람 사는 것 같고 얼마나 좋을까? 이 집 애기들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 환해.” 그 말을 듣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는 덩달아 기분이 좋다.

아직 사과농사일에 서툰 선영 씨지만 젊은 농부로서의 각오는 사

과 속 까만 씨앗처럼 단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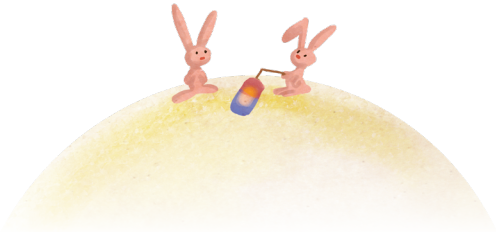
“새벽에 나가 풀 베고 사과 따고, 선별해서 박스에 담고, 일할 때는 일하는 재미에 빠져 모르는데 집에 오면 온몸이 다 쭈셔요. 농사일이 정말 고된 일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일도 제법 손에 익어 덜 힘들겠지요? 요즘 블로그를 만들어 우리 농장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올해 사과밭에 있는 자두 몇 그루에서 자두가 엄청 많이 맛나게 열렸었어요. 그걸 소개하니 주문들을 해주시는 데 정말 순식간에 다 팔았어요. 사과도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블로그도 좀 더 손보고, 전자상거래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해 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겨울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농사교육을 받고 집에 와 시아버지를 독선생으로 모시고 농사공부에 정진할 작정이다.

친환경저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손이 더 많이 가지만 농장에서 사과를 따서 그 자리에서 먹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날이 갈수록 빨강게 익어가는 홍로를 보며 요즘 마음이 붉은 사과만큼 부풀어 오른다. 아이들도 사과도 다 잘 키워 젊은 농군으로서, 엄마로서도 성공하고 싶다.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붉은 사과, 그리고 빨간 볼을 하고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다.





‘십 년을 입어도 일 년 입은 듯, 일 년을 입어도 십 년을 입은 듯’이라는 어느 양복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새롭지만 낯설지 않고, 익숙하지만 질리지 않음을 은근히 강조한 광고 문구였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순간순간 새로움을 찾아 나아가며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인생이겠지요.

9월의 여성시대 우체통은 새로운 진행자 서경석 씨에 대한 격려와 축하 사연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서경석 씨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서경석 씨가 마치 여성시대와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 같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편지로 미니로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신 사연에 의하면 ‘낯설지가 않다. 친숙하다. 여성시대가 젊어졌다. 활기차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왔을 때 따뜻하고 넉넉한 시선으로 반겨주시는 여성시대가 족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여성시대 식구로 자리를 잡은 서경석 씨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이번 달부터는 서경석 씨의 글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눈여겨 보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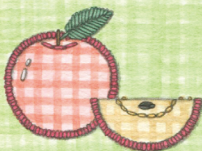
이달의

편지



- 12 아버지와 라디오 그리고 나
- 17 5층 할머니와의 만남
- 21 제 아내는 보살입니다
- 25 아파트 관리실의 우수직원 최 주임
- 30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떠나고
- 34 두 번의 명예퇴직과 세 번의 취업
- 37 나를 키워주신 아빠
- 41 가공되지 않은 나만의 보석, 아내
- 45 청소아줌마는 도우미가 아니랍니다
- 49 짐이라는 것
- 53 입양아인 나를 키워주신 엄마
- 57 남편은 오지랴 대마왕
- 61 차두 두 알에 담긴 사랑

Letter 1

아버지와 라디오
그리고 나

박유자 |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지 금으로부터 25년 전, 제일 한국인인 나는 20대 후반에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 유학 중 일본어 교사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갈 때는 자주 버스를 이용하곤 했다. 버스 안에서는 <여성시대>가 주로 흘러 나왔다.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유학생생활이라 언제나 지쳐있었던 나에게 당시 <여성시대> 손숙 씨의 지적이면서도 따스한 말투가 큰 위로가 됐다. 내 한국어 실력으로 100%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는 청취자의 사연들이 잠시나마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나에게서는 짧은 휴식시간이었다.

그로부터 25년의 시간이 흘렀다. 인터넷 라디오는 나에게 일본에 있으면서도 MBC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꿈같은 현실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일이 없는 휴일에 컴퓨터를 열어 MBC 방송에 로그인해 라디오



를 클릭한다. 그러자마자 바다를 건너 왔다고는 믿기지가 않을 만큼 선명한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이렇게 나는 반가운 <여성시대>와 재회했다. 진행자는 바뀌었지만 그때와 변함없이 마음이 훈훈해지는 분위기를 계승한 <여성시대>, 양희은 씨와 서경석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아득한 40여 년 전의 기억이 느닷없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제일 한국인 2세인 평범한 아줌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일본 학교를 다녔고 대학생이 되어서야 본명인 한국 이름을 쓰게 되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는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이었다. 노동은 고됐지만 부지런한 사람이고, 장사에 능숙해서 수입이 꽤 좋았다. 그러나 젊은 날 노름을 좋아했던 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가끔씩 노름을 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한다. 다섯이나 든 딸을 교육시키고 키우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살림하던 어머니와 그 때문에 다툼도 있었다고 하지만, 막내인 내가 철이 들 무렵에는 아버지는 이미 노름에서 손을 씻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돈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는 당시로서는 고급스러운 전화 제품 등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에 사와 어머니의 속을 타게 했다. 어머니가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어린 나는 아버지가 사온 물건들이 신기해서 눈을 반짝거렸다. 생활에 전혀 소용이 없거나 우리 집의 크기에 전혀 맞지 않는 대형 에어컨, 상들리에 등의 물건들이었다.

40년 전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어느 날, 아버지는 으레 그랬듯이 단골이었던 상가의 전기가게 주인의 권유로 당시 최신형 카세트 라디오를 구입했다. 나와 11살 위인 넷째 언니는 무척 기뻐하며 그때부터 저녁때는 늘 라디오를 들었다. 좋아하는 일본 포크송이나 팝송이 막

시작하게 되면 언니와 나는 부라부라 카세트테이프를 눌러 녹음을 했다. 라디오는 아버지가 사온 것 중에서 드물게 ‘쓸모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면 나와 넷째 언니가 독차지했던 카세트라디오를 자신의 머리맡에 두었다. 우리는 주로 FM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AM으로 바꾸고 조심스럽게 버튼형 스위치를 돌리면서 주파수를 맞췄다. 귀를 기울이면 잠속에서 나에게는 낯선 이국의 말이 들려왔다. 아버지는 한국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다. 밤의 정적 속에서 겨우 들릴 정도의 볼륨으로 뚜렷하게 들리다가 금방 잠에 싹 지워지곤 하던 소리에 아버지는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였다.

하루의 육체노동에서 겨우 해방된 마무리 시간에 아버지는 어떤 생각으로 고향의 말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을까? 10대에 고향을 뒤로하고 60세 중반에 고향땅을 밟았던 아버지. 하지만 그 후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다시 고향을 찾는 일은 없었다.

내가 한국에서 유학하던 2년 동안에 친척 분들도 뵈고 많은 친절을 받았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느 친척분이 고향을 돌아볼 수 없었던 우리 아버지에 대해 문득 토로한 말은 “아버님은 무심하셨다”였다. 당시 한국에 와서 일 년도 안됐던 나는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 한국어가 내 맘대로 안 될뿐더러 교포 1세대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몰랐다. 단지 마음속으로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외칠 수밖에.

아버지는 타향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을 것이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72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기름투성이에 무거운 고철을 산소버너로 불꽃을 튀기면서 철을 절단하고 날랐다. 조수석에 어머니를 태우고, 내가 취학 전에는 가끔 나를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우고 2톤 트럭을 몰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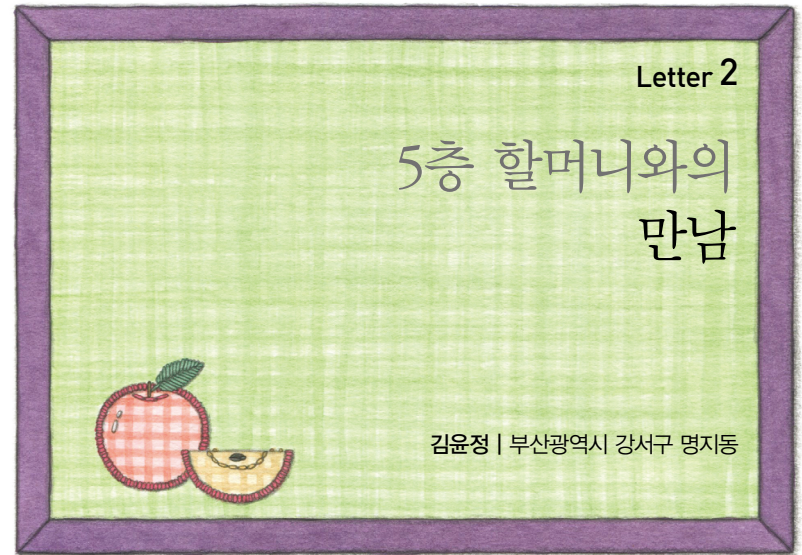
아버지는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였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일제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버지를 잃고 10대에 고향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건너와 건축현장에서 막일이나 도공 등을 하면서 일본 전국 방방곡곡을 전전했다는 것뿐이다.

아버지는 고향 친구에게 “나는 사는 게 편치 않았는데 아내를 만나고부터 달라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어렸을 적부터 가족과 멀리 살았고 짧은 시절부터 장래를 꿈 꿀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나이 40세에 어찌다가 17살 어린 아내를 만나 살림을 차리게 되었다. 비로소 가정적인 인간적인 삶을 손에 넣은 것일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단 한 장만 가지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액자에 넣어 평생 거실 벽에 걸어두었다. 결국 아버지는 고향을 떠난 후 한 번도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다.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사진 속의 우리 할머니는 마치 초상화 같은 단정한 모습으로 새하얀 한복을 입고 가름한 얼굴에 머리는 중간에서 가르마를 타고 조용히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버스를 타고 들었던 〈여성시대〉에서는 신형원 씨의 ‘더 좋은 날’이 흘러 나왔었다. 그 가사는 자기 일에만 얽매어 있었던 나에게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했다. 우연히 같은 버스를 함께 탄 사람들의 인생을 상상하게 했다. 그 순간 거기 있던 사람들과 마음으로 교신하는 것 같은 묘한 일체감이 나를 감쌌다. 나에게 조국이란 어찌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인지도 모른다.

- 일본 땅에서 재일교포 1세대에 대하여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은 재일교포 2세로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아랫집 아저씨, 윗집 아이들 등등 같은 라인의 사람들을 꽤나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70대 정도로 보이는 흰머리의 할머니가 옆에 오셔서 같이 기다리십니다. 가끔 보면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와 함께 목례 정도만 나누는 사이인 5층에 살고 계신 걸로 추정되는 할머니시지요.

늘 혼자 다니시는 것 같던데 다른 가족은 안 계시고 혼자 계시는지, 뭐 그것 역시 추정입니다. 같은 땅덩이 위 기다란 건물 안에 웅기종기 모여 사는 같은 동 아파트 주민들인데도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누가 누군지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지요.

그날도 “안녕하세요” 무미건조하게 저는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그



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새댁 바빠요? 시간 있음 우리 집에서 차 한잔 잠시 하고 갈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짧은 순간 머릿속으로 오만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단계 같은 물건이라도 팔려고 하시는 건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 가족이 동네에서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실수한 일이 있는가.’ 미소 가득한 얼굴로 내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5층의 할머니 집으로 졸졸 따라 들어갔지요. 집안은 정리가 잘되어 있었고 책을 즐겨보시는 듯 거실 곳곳에 책이 많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내어주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거실 중앙의 테이블에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천천히 차 한잔 들어요. 14층 새댁이지요? 아이들이 어린 것 같던데 그맘땐 엄마가 늘 바쁘지요.”

“네. 아들만 둘이라 힘이 드네요.”

“그렇지요? 나도 아들이 둘인데 지금은 다 지방에서 일을 해서 명절 때나 되어야 봐요. 영감도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버려서 나 혼자 이렇게 있지요. 늙은이 혼자 있다 보니 집안이 엉망이지요? 이해해요. 새댁.”

할머니와의 대화가 이래저래 오가고 그래도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니 집까지 부르셨을 텐데 이리저리 말씀을 돌리시는 것 같아 제가 먼저 말을 꺼내었습니다.

“저… 할머니,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부르신 건지…”

“이 늙은이가 갑자기 차를 마시자 하니 젊은 새댁이 놀랬구려. 실은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하며 휴대폰을 꺼내어 저에게 내미십니다.

“오래 쓰던 휴대폰이 고장 나서 얼마 전 스마트폰으로 바꾸었는데 주변사람 말을 들어보니 요새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랑 전화 말고 글자로 대화도 할 수 있다 하고 전화기로 인터넷도 할 수 있다 하고 그걸 좀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살펴봐도 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 해도 늙은 사람이 주책이라 할까봐 망설였는데 엘리베이터 오가다 새댁이 아들 둘을 데리고 다니는걸 보니 내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고 해서 눈여겨보았는데 인상도 참 좋아보여서 새댁에게 부탁하면 좀 배울 수 있려나.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오늘 우리 집까지 오라고 했네요. 미안해요, 새댁.”

할머니의 그 말씀에 종교와 다단계를 상상했던 제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뜻 밝은 목소리로 대답해드렸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요. 저희 시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얼마 전에 스마트폰으로 바꾸셔서 제가 다 알려드려서 지금은 카카오톡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영상통화도 하신답니다. 제가 다 가르쳐드릴게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함박웃음을 지으십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택에 내려가 스마트폰 다루는 법을 이래저래 가르쳐드렸고 할머니는 갈 때마다 제 손에 낱 자아이들 먹성 대단할 텐데 가서 먹이라며 집에서 만든 식혜며 빵을 들려주셨습니다.

만남이 늘어나고 대화도 많아서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그 옛날 명문대를 졸업하셨더군요. 젊은 시절 지성인으로서 늘 당당하셨을 텐데 연세가 드시니 그냥 흰머리의 할머니로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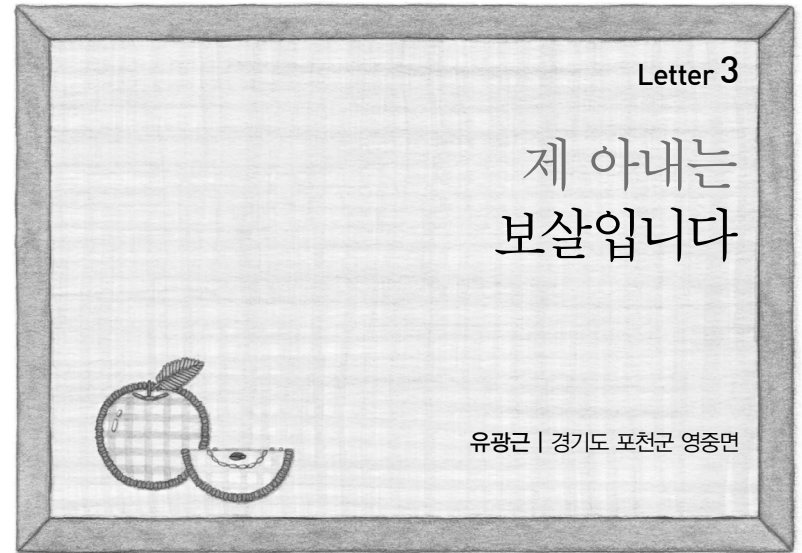
그래도 스마트폰을 이제 잘 다룰 수 있게 되어 멀리 있는 손자들이 랑 카카오톡도 하고,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 돋보기를 끼고 안 보이는 눈으로 늘 사전을 이용했는데 이제 스마트폰 사전어플로 검색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큰일이라도 한 양 즐거워집니다.

어제는 할머니가 '집에 잠시 내려와요'라는 문자를 제게 보내셔서 내려갔더니 신문을 매일 읽는데 신문 한켠 어린이 란에 어린이과학상식과 한자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집 애들이 생각나 그걸 매일 오려 모았다며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예전 친정아버지도 신문을 읽고 나면 중요한 기사를 모아 스크랩하는 걸 즐기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도 나고, 약간은 아날로그적인 할머니의 마음과 사랑이 가슴에 와닿아 "이렇게 귀한 걸" 하며 두 손 고이 받아 아들 녀석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께 작은 것을 드리고 저는 너무 많은 마음을 받는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요즘입니다.

"할머니, 늘 건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24살, 21살이 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52세 남자입니다. 포천에서 규모는 아주 작지만 인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고, 감히 애청자라고 할 순 없지만 요즘 매일 방송을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예년과 달리 봄부터 매일 인삼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MBC 미니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될 때마다 삶의 애환과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성시대에, 오늘은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 지금까지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전부터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통, 무기력증, 가슴답답함, 빈

혈, 다리 저림, 몸 떨림, 불면증, 목에서 느껴지는 이물감, 심하면 불안과 공포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무슨 병인지 아시겠지요? 저는 나중에야 알았는데,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이 중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불면증과 무기력증이었습니다.

심한 날엔 한 발짝도 내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남들처럼 의욕도 열정도 없이 살아온 것 같네요. 공황장애, 남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초제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놔다 했는지 모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의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한의원까지 안 다녀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어린 자식들에게 해준 것 없이 늘 짜증을 낸 것이 계속 후회로 남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친정 남동생네 제과점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서울로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했지만 내가 짜증을 내도, 돈을 못 벌어 와도 싫은 내색 한번 없이 묵묵히 내 곁에 있어준 고마운 은인입니다. 그래서 한 지인은 제 아내를 '보살님'이라고도 하더군요.

큰아들은 제대 후 대학교 3학년에 복학했고, 작은 아들은 대학 1학년생인데 현재 21사단 최전방에서 군 생활 중입니다. 두 녀석 모두 고등학교 입학 후 한번도 용돈을 받지 못했죠. 교통비, 옷, 책값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주말과 방학 때 제과점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인정받았는지 빵 굽는 걸 하게 하고, 아르바이트 비용도 남들보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일하는 매장에 잠깐 들려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지배인이 '죽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칭찬까지 하더군요.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푼푼히 모은 돈으로 두 형제는 함께 3년에 걸쳐 학생 신분으로 천만 원짜리 적금도 댔습니다.

개인적으로 큰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큼니다.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이가 고3일 때 "아빠가 밀어줄게, 방학 때 영어, 수학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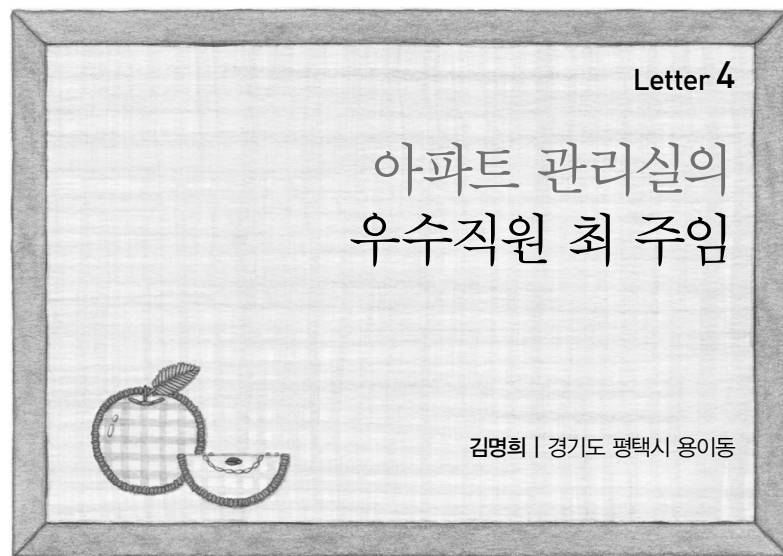
이라도 과외하지” 했더니, 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더 말을 얹더군요. 하지만 수능을 치르고 아들이 “나 혼자선 한계가 있겠나 봐요”라고 말하는데, 아버로서 해준 게 없어 미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친구 소개로 2년 전, 병원을 바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6개월 정도 복용하니 차츰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좋은 컨디션을 부작용 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정도를 헤매다가 이제야 제 체질에 맞는 약을 찾은 것 같네요. 그동안 신경안정제, 공황장애 약을 먹어 왔지만 부작용이 심하고 효과가 없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동안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인삼농사도 6, 7년째 짓고 있는데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네요. 하지만 이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두 아들에게 미안했던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고 사랑하오. 병진아! 언젠가 아빠가 도로변에 심겨진 꽃을 몇 개 뽑아서 집 마당에 심었을 때 “아빠 그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지? 정직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둘째 병훈아! 어려운 일도 척척 용기 있게 처리하는 병훈이를 아빠는 대견스럽게 생각한단다. 군 생활 슬기롭게 잘하고 있지? 보고 싶다. 병훈이가 제대하면 지난해 우리가 울릉도에 가자고 했던 약속, 아빠가 꼭 지켜줄게.”

전국의 여성시대 애청자 여러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아시죠? 오늘 제 얘기가 아무쪼록 저 같은 증세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 겨울, 몹시도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이날도 변함없이 입주민의 크고 작은 민원 처리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늦은 저녁으로 허겁지겁 겨우 주린 배를 채우고 믹스커피를 스푼처럼 빼어들었다. 순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네, 관리실입니다.”

“관리실이죠?”

“네~ 무슨 일이십니까?”

“도대체가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인가요?”

“현관문에 광고지가 장난이 아닌데 도대체 경비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경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잠상인들

이 아무 제재 없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도 통제를 못하고 있으니, 월급 받아 갈 자격이 있긴 한 거예요? 이 쓰레기 빨리 치워 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빠른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최 주임은 배가 고파 급하게 먹었던 저녁이 꽉 막힌 듯 가슴이 답답해왔다. 만감이 교차했다. 한숨이 든 물 한 잔을 들이키자 불현듯 2주 전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 너무도 보고 싶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애들 자? 우주는 잘 놀았어? 많이 힘들었지? 오늘 당직 서고 내일 일찍 들어갈게. 뭐 먹고 싶은 것 없어? 내일 퇴근할 때 사 가지고 갈게. 문단속 잘 하고 잘 자. 사랑해!”

최 주임은 자리에 쓰러지듯 앉아 등을 기댔다. 뻗뻗한 뒷목이 피로감을 더해주었다. 순간 덜컥 문소리가 들리더니 오십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한 분이 어색해하며 사무실에 들어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무슨 부탁을…”

“201동에 사는 주민이에요. 혹시 저희 동 엘리베이터 CCTV 좀 확인 해볼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요. 그냥 좀 볼 수 있나 해서요.”

“죄송합니다. 무슨 영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CCTV는 보안상 함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경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에는 우리 직원도 맘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여자 분은 난감하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아… 그래요. 괜한 걸 부탁 드렸네요. 미안해요.” 쓸쓸하게 나가는 여자의 뒷모습 뒤로 함박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입주자 대표회의 주체로 아파트 관리팀 전체가 송년 회식이 있는 날이었다. 모두들 부산하게 일들을 정리하고 회식 장소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 주임, 축하하네!”

“소장님, 무슨 축하요?”

“둘째 아들 보더니 복이 터졌어.”

“놀리지 마시고 말씀이나 해주세요.”

“자네 이번에 최고 우수 직원 상 받게 되었다네! 상패와 금일봉 받을 텐데 설마 모른 척 하진 않겠지? 다시 한 번 축하하네. 모두들 마무리 잘 하고 늦지 않게 참석하게들~.”

소장님이 던진 소식에 최 주임은 씩스러움에 머리를 긁적였다. 순간 옆에서 일을 하던 양 반장이 유리문 밖을 내다보더니 이야기를 한다.

“저 아주머니 또 왔네. 좀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해?”

“저 여자분 며칠 전에 나 당직 때 들어와서는 CCTV를 좀 보여 달라고 통사정을 하던 여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봐도 얘기도 않고 한참을 서 있다가 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오늘 또 왔네. 저기 좀 봐!”

최 주임은 양 반장의 얘기를 듣고 생각난 듯 깜짝 놀라 창밖을 보았다. 역시 그 여자 분이었다. 뭘지는 모르지만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몇 번을 더 왔었다는 얘긴데 뭐지?’ 최 주임은 무슨 일 때문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았다.

“저 사모님, 혹시 사무실에 불일이 있으신가요?”

순간 여자 분은 당황하며 “아… 네” 머뭇거렸다. 며칠 사이 수척해



진 여자는 힘들게 용기를 내어 얘기했다.

“미안합니다.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제 부탁 꼭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201호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 달 전에 우리 집 아저씨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이 훌쩍 떠나가고 말았지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다니... 너무도 보고 싶어 죽을 것만 같은데 나에겐 따라갈

용기도 없고 간신히 버티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엘리베이터 CCTV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엘리베이터 타고 함께했던 모습들을 간직하고 싶은데 몇 번을 왔지만 말을 못 꺼내줬더라고요.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더니 그 여자 분은 온 몸을 떨며 흐느껴 울었다. 간신히 사연을 얘기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은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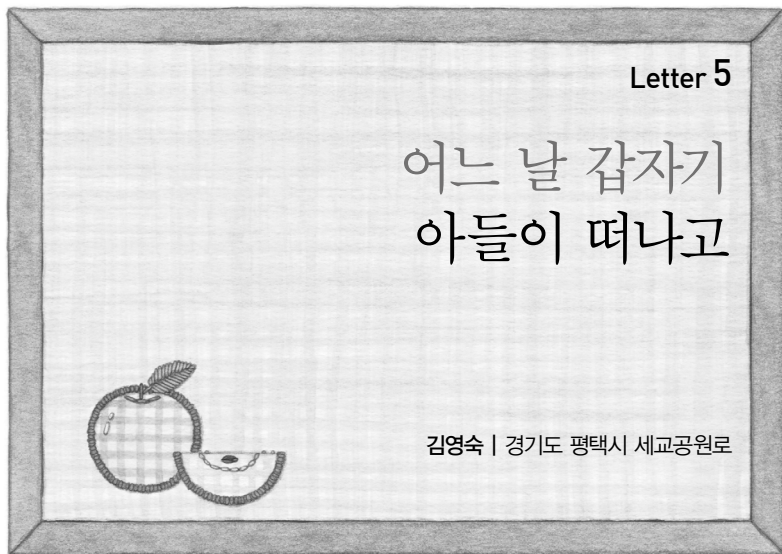
어느새 하던 일을 멈추고 듣고 있었던 관리 직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최 주임, 사모님 좀 도와 드리게!”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여자 분은 시스템 중앙실로 안내를 받으며 연신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최 주임은 그 부부의 추억이 실린 영상물을 복사해서 건네주고 조금 늦은 시간에 회식 장소로 가기 위해 텅 빈 사무실을 나섰다. 그 사이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 버렸다. 알 수 없는 잔잔한 흥분에 흐뭇함이 묻어났다. 순간 갑자기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다.

이튿날 관리소로 굴 한 박스와 사과 한 박스가 배달이 되었다. “누가 보낸 거지?” 다들 궁금해 하는데 경리 주임이 “어머, 201호 그분이 보낸 건가 봐요. 여기 편지도 있어요” 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고 또한 남편을 보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약소하지만 작은 마음을 보냅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최 주임은 때로는 힘겹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나 하는 순간도 많았지만 이 일이 주는 감동적인 사람 냄새 나는 스토리가 있기에 오늘도 짝 짝 주먹으로 파이팅을 한다.



이 른 저녁 화요일이면 장이 서는 아파트 마당은 분주하고 활기
차다. 어찌면 그런 활기를 보고 싶어 이곳을 서성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나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글썽거려진다. 지금도 네
가 떠나간 그 저녁이 생각나서 저러오는 가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일게다.

사랑하는 아들! 네가 몹시도 그림구나.

수없이 네 이름을 외치고, 네 가슴을 때리고, 굳어져 가는 네 손을
감싸며 몸부림쳤던 날이 어제처럼 생생한데 어느새 7개월이 훌쩍 지
나갔다.

지난해 12월 16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어두워질 무렵이었지.

맑은 하늘에 별들이 총총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외출 중에 휴대전
화가 가방에서 울려댔다. 별생각 없이 들여다보니 조금 전 헤어진 남
편의 전화였다.

“네, 왜요?”

“빨리 와. 집으로 빨리 와. 빨리 와.”

그저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 말만 한다. “왜요?”라는
나의 말에는 대꾸를 못하고 같은 말만 하는데, 갑자기 불안이 밀려와
집으로 향했다. 허둥지둥 택시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퇴근시간이라
택시를 잡기까지 20분 조금 넘게 걸렸는데 그 시간이 긴 세월처럼 아
득하다.

집으로 들어가는 넓지 않은 길목에 구급차, 경찰차, 순찰차 등 여러
대의 차가 줄지어 있었다.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니 온 집안에 대낮인
양 모두 불이 다 켜져 있고, 거실에는 남편이 축 늘어져 멍한 눈으로
앉아 있고, 서너 명의 남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아들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뭔가를 적고 있었다.

“애가 왜 이래요?”

아들의 얼굴은 파리한 빛이 돌고, 보기만 해도 차가워 보였다. 아들
얼굴을 내 얼굴에 부비며 아들 가슴을 때리며, 연신 이름을 불렀지만
굳게 다문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애가 왜 이래? 애가 왜 이러냐고?”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제야 남편은 영영 울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말했다. 오전에 잠을 자겠다고 멀쩡하게 제 방으로 들어가
며 “엄마, 나 깨우지 마. 내가 알아서 알람 맞추고 잘게” 그랬는데 아
들은 영영 깨지 않았다.

아들의 눈을 억지로 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밖으로 끌어냈

다. 우리 아들인데, 만지지도 바라보지도 못하게 내쫓고 있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모든 일이 아스라이 멀어져 가고 아득해졌다. 이들의 영혼이 빠져 나가듯이 내 영혼도 그 아이를 찾아 빠져 나가고 있는 듯했다.

이미 내 영혼은 빈 껍질이었다. 언제 그랬는지 그렇게 비워졌는지 알 수 없었다. 차갑게 굳어져 있는 모든 것이 석고상 같기만 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물 위를 비추고 있지만 달은 물 위에 다다른 적 없고 내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이 내 품에서 떨어져 갔어도 나는 다다를 수 없었다. 내 몸은 울음이 가득 찼지만 목을 통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리가 마구 떨리고, 손이 떨리고, 이가 딱딱 부딪쳤다.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다.

이들은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란다. 이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다니는 절집에서 49제를 지내주었다.

내가 사는 현실이, 현실이 아님에도 잠을 자야 했고, 배가 고팠고, 목이 말라 물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아들과 관련된 이런저런 일을 처리했다. 금융, 보험, 카드, 면허, 연금, 자동차 등 성인이다 보니 할 일이 많았다.

우리 가족은 그저 최선을 다해 견디어내는 일을 해야 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일을 해야 했다. 나와 남편은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살던 집에서는 더 이상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어 낡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여 이사를 했다. 살던 집은 그대로 두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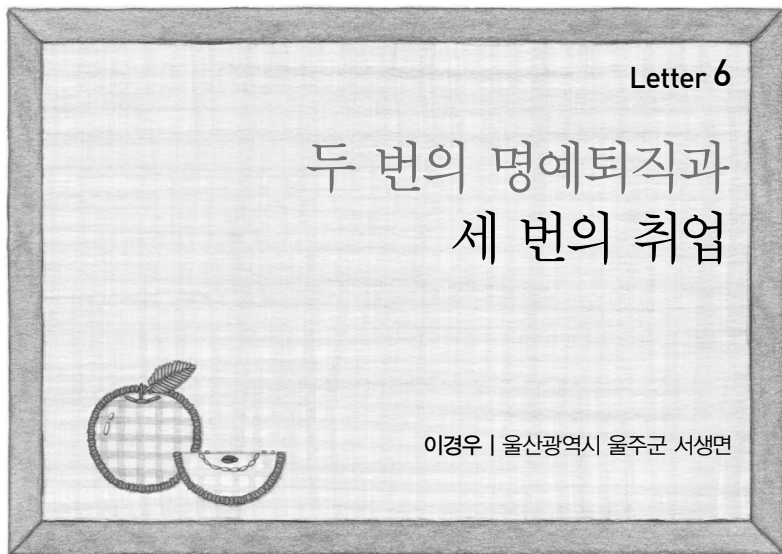
마음을 빼앗기고 아픔을 참다보면 몸살이 나는 사람의 신체구조가 신기하다.

우리가 이사 온 집의 옆집에서는 날마다 한 할머니가 악을 쓰고, 어느 땐 노래를 부르신다. 어떤 날은 젊은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린다.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그 집 문 앞에는 음식을 시켜 먹고 난 일회용 그릇들이 깨끗하게 씻긴 채 차곡차곡 쌓여갔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집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였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아들이었다. 유일하게 내가 아들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은 옆집 할머니가 악을 쓰며 외치는 순간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이 많이 있었다.

사람은 가도 계절은 돌아오고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속절없이 새로운 계절은 왔다. 문득 지난 12월 아들이 떠나기 전 새 달력을 얻어와 들여다보며 메모했던 것을 들추어보았다. 다음 해의 달력을 보며 '내년에는 아들에게 좋은 차를 한 대 사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다. '대출을 받아 사주고 일 년 정도 갚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먹었었다. 그 생각을 하며 내 마음에 생기가 돌았었다. 자식이란 어찌 되었던 뿌듯한 존재다.

아들이 떠나고 온천지가 눈으로 가득한 겨울날, 우리 아들이 피운 것만 같은 눈꽃을 보며 목이 메었다. 그 눈꽃처럼 내 아들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떠나갔다.

이제 나는 아들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의연해지려고 한다. 기도를 하고 싶다. 인생의 덧없음을 끌어안고, 수없이 많은 이 세상 슬픈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싶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절실한 기도를 하고 싶다.



저는 올해 5학년 6반 남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입사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하였습니다. 현장 생산라인부터 관리 업무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였으나 2009년 12월 말일로 회사의 경영 축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명예롭지 못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이 있기에 돈을 더 벌어야 하는 때였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위로금이 있었으나 집 구입 시 대출금 상환과 앞으로 아이들 교육비로 일부 저금을 하니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그때까지 한눈팔지 않고 한 직장만 초지일관한 저는 온실에서 편히 있다가 이제 막 들판에 나온 연약한 화초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 정도 구직활동을 하며 은 좋게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여 5년을 근무하였지만 경영 악화로 2014년 12월 말일로 두 번째 명예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큰애는 대학을 졸업하여 직장을 잡고 2014년에 결혼하여 자립을 하였으나 둘째는 대학교 3학년으로 아직 교육비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둘째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최소 5년 이상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 명예퇴직은 다시 한번 5년 전과 똑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며 32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어느 한 곳도 면접을 요청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56세인데 정년이 가까운 저 같은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회사가 없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전 직장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업무를 바탕으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회사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35년 동안 제조업에서 경험한 다양한 경력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이런 제 경험을 앞으로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후배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차별화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기록된 이력서가 아닌 제가 35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2개사에서 경험한 경력을 5년씩 끊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경험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업무 성과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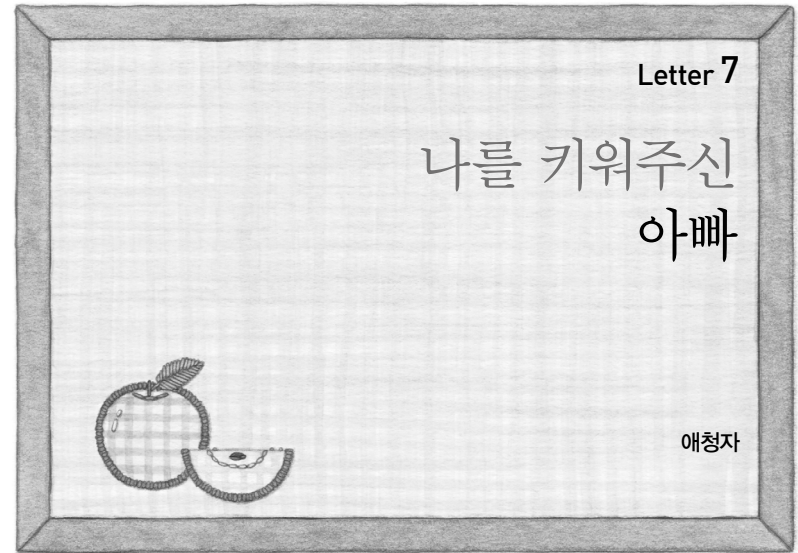
도 실적 위주로 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와 추진 업무에 대하여 계획을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예상 성과도 기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원하는 회사에 면접을 대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생산하는 제품 정보, 기업 문화, 거래처 등의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인 광고를 통하여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재작성한 이력서로 3월부터 지원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적중하였습니다. 5개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결과 2개사에서 면접 연락이 왔고 저는 그 중 한 곳에 최종 합격이 되어 4월 1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이나 장년층의 실업률이 최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저 같은 베이비붐세대는 대부분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재취업 시 기록하는 이력서에 학력, 경력, 스펙을 전부 기록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이력서부터 차별화하여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관행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베이비붐세대와 명예퇴직한 모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다고, 정년이 되었다고,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용기와 희망은 좌절하거나 실망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을 둔 싱글맘입니다. 전 3살 때부터 아빠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다보니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런 핑계로 방황을 많이 하였고 혼자되신 아빠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습니다. 단지 엄마가 없어서 그랬다고보다는 저한테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는 아빠가 부담되고 귀찮았지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기에 당연히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엄마가 집을 나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게 아빠 탓이다 싶었습니다. '나한테 했던 것처럼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엄마가 나가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방황을 시작했던 순간이. 아빠를 원망하고 대들고 문 잠그고, 그렇게 사춘기를 호되게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는 결혼해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다시 아빠와 함께 살면서 아빠가 주는 돈을 당연하게 받았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빚까지 갚아주는 아빠를 두고 제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갔던 적도 있었지요. 아빠 집 팔고 남은 돈을 갖고 말이죠.

그때 당시 아빠는 고지혈증에 걸핵까지 앓고 있었는데 내 기분만 생각하면서 아빠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야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돈이 없어 힘들 때였지요. 아빠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받아주었고 그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었습니다.

2011년 다시 아빠와 제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 때, 아빠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전 '수술하면 낫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걱정을 하며 아빠를 살리기 위해 별 노력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아픈 와중에도 돈을 못 벌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힘이 들었어요. 돈을 벌 사람은 이제 저 혼자였으니까요. 식당일을 하면서 근근이 살았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아빤 제 걱정만 하시고 전 아빠가 빨리 나서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6개월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몸이 괜찮다고 하며 다시 생활비를 벌어오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일도 하지 않고 아빠에게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빠는 암이 재발되어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사신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빠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 걱정만 하시더군요. 작년 4월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도 전 애 핑계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5월에 아빠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셨



습니다. 통증에 시달리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제 이름은 아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호스피스병동으로 옮긴지 열흘 만에 결국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오신 아빠의 친구 분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엄마 소식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엄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떨리기는 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엄마와 만났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생모가 눈물을 쏟아가며 딸을 반갑게 맞아주던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비참하고 매정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곱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아빠 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절 키워주신 분인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아빠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넌 그 사람 친딸이 아니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입을 통해 모든 이야

기를 듣는 순간 엄마에 대한 분노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빠의 사진을 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아빠를 생각하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빠는 결혼 한 번 안한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하나 바라보며 평생을 사신 겁니다. 저와 제 아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달게 받았던 아빠는 동네에서도 딸바보 손자바보로 불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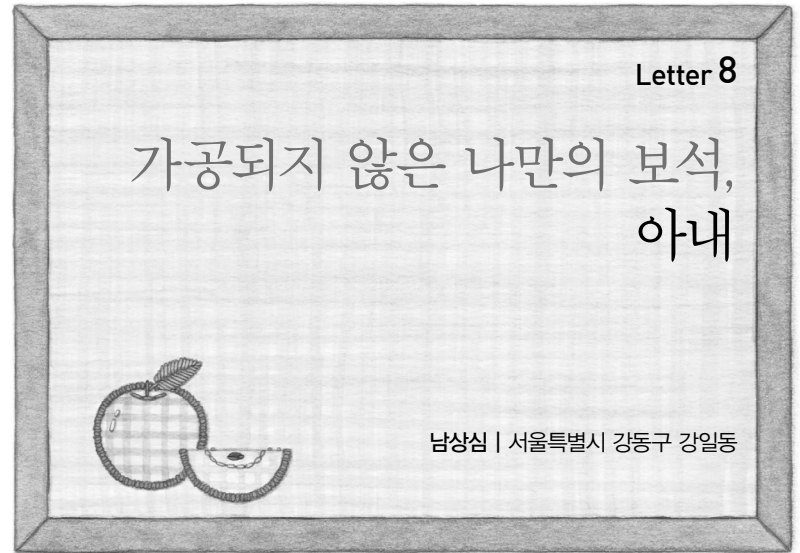
아빠는 옆집에 살던 제 엄마가 재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핏덩어리인 저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며 데리고 오셨답니다. 왜 아빠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나니 아빠가 저를 잘 데리고 나오셨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 엄마라는 분은 지금 가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날 만난 이후 전화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젠 연락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며 살 겁니다.

제게 벌어진 이 일들로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아빠와 생모이지만 저를 나 몰라라 하는 엄마를 생각하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답니다. 지금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보며 사춘기 때 제 모습이 떠오르며 아빠의 심정이 어땠는지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아빠의 사진을 보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빠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많이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앞서 있는데 실천이 잘 되지 않는군요. 저 잘되라고 훈계도 하고 격려도 해주시던 아빠의 잔소리가 듣고 싶은 아침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빠, 제 얘기 듣고 계시지요? 저 노력하는 딸이 될게요.”



산 골마을 초가집 뒤뜰에서 봄에 꽃을 피워 열매를 얻고 가을에 붉게 익어가는 감나무를 보면 행복합니다. 그 감나무 가지에 등지를 틀고 알을 낳아 키우는 산비둘기는 다 자라 어미 곁을 떠나는 새끼들을 흐뭇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제가 자란 곳은 산골마을입니다. 산골오지 초가집에서 자란 자식이 도시로 떠나고자 했을 때 제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군으로 살기 바라셨던 부모님을 뒤로하고 도시로 나와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고향에 그냥 남아 농사를 지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세상 풍파를 겪으며 고향이 늘 그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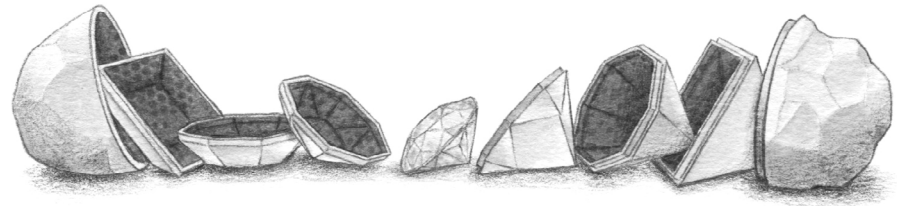
하지만 원망도 불평도 후회도 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

며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넓은 바다를 욕심내지 않고 산속 좁은 동굴로 들어가는 산토끼처럼 산동네 좁은 전세방만 찾아다녔지요. 어려서부터 배부르게 먹으며 자랐다면 이렇게 절약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자라지 않았다면 이렇게 옷을 아끼며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짐이 무거워 힘들 때는 잠시 흐르는 물을 건널 때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도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시각장애를 가지고도 좋은 소설을 쓴 사람도 있는데, 난 장애가 없는 몸으로 운전을 하니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 평생을 무사사고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택시기사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아내는 묵묵히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는 가공되지 않은 보석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진흙 속에 있는 진주처럼 남들 앞에 빛이 나지 않아 남들은 모르고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가슴을 열어본다면 가난으로 찌른 간이 고생으로 녹아서 다 타버리고 그 자리에는 검은 재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파킨슨병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2년 전, 갑자기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별 것 아닐 거라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파킨슨병이라고 했습니다. 퇴행성질환으로 완치될 수 없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의 친구 남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일터로 나가는 데 저는 가만히 누워 아내의 수발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세탁기를 돌려놓고 저의 머리를 손질하고 염색까지 해주고 입안까지 깨끗하게 닦아주



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손톱 발톱을 깎아주었습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으로는 우울증, 불면증, 저혈압증, 호흡 부조화, 변비, 배뇨장애, 침 흘림, 손·발의 부종, 근육 통증 등 전신에 여러 가지 증세들이 일어납니다. 발가락이 꼬부라지는 건 기본이고, 종아리가 뒤틀리고 시리고 저리고 쥐가 나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변비로 한방, 양약, 민간요법 다 해보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관장을 하며 배뇨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몸이 굳어서 로봇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제 상태가 이러니 모든 일상은 아내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차라리 아내가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울기라도 하면 제 마음이 편할 텐데 아내는 조용히 제 옆에서 제 뜻을 따르며 숨죽여 참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제 몸이 이러니 가려운 등을 혼자 긁을 수도 없고 저런 다리를 들어 돌아누울 수도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몸부림을 치며 울기도 합니다. 나 혼자 고통받는 건 그런대로 참아보겠는데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숨죽여 우는 아내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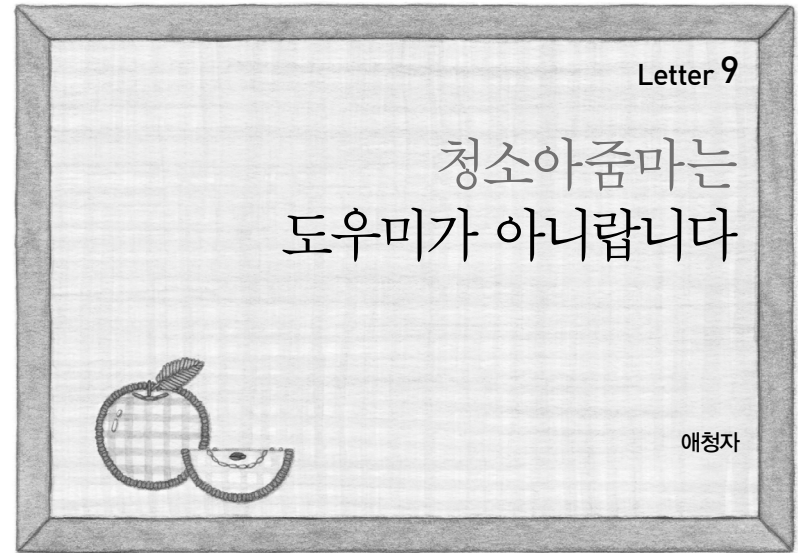
며 내가 아내에게 참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자책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 내일 아침에는 영원히 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잠을 청해보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귀를 깨우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코를 깨우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 창문이 열리며 신선한 바람이 눈을 깨웁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루치의 행복이 밀려옵니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며 아내에게 더 잘할 것을 후회도 해봅니다. 아침 출근길에 하얀 빨래를 널며 잘 다녀오라고 활짝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던 아내의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꽃 한 다발을 사 와서 신발장 정리도 해주고 설거지도 대신 해주고 싶습니다. 나한테 한없는 기쁨을 주었던 아내에게 한없는 기쁨을 선물하고 싶은데 이젠 그럴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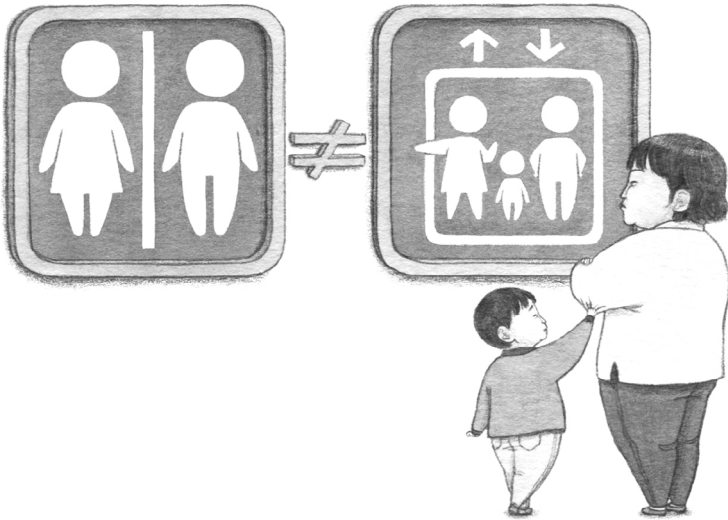
나의 삶은 팽이와 같았습니다. 팽이는 치는 사람이 있어야 도는데 나의 아내가 팽이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팽이가 썩 없이 돌아가게 팽이를 치는 아내가 없다면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것입니다. 열심히 팽이를 돌리며 살아온 아내에게 이제는 병수발까지 들게 하고 얼굴 가득 주름을 만들어 놓았으니 미안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나무가 바람이 싫어도 피할 수 없고 바위가 빗물이 싫어도 외면할 수 없듯이 나의 아내는 어찌 할 수 없이 나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바람에 고통받는 나무와 빗물에 통증을 겪는 바위를 몽땅 끌어안고 있는 큰 산처럼 나의 모든 슬픔을 몽땅 끌어안고 무너져 버린 얼굴로도 웃고 있는 당신은 큰 산입니다. 나는 큰 산과 같은 아내가 있어 지금에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 마 전, 화가 치미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긴 복도식입니다. 층마다 엘리베이터 2대가 짝수, 홀수로 운행되다 보니 가끔 출퇴근 시간이나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출퇴근 시간도 아니었고 아이들 하교가 끝난 조금 여유로운 오후였어요. 저는 이들의 학교 준비물을 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10층에서 문이 열리더니 네다섯 살 쯤 돼 보이는 꼬마와 사십 대로 보이는 아이 엄마가 타려고 서 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 꼬마 아이가 안절부절 하지 못하며 “엄마 쉬 마려워~ 쉬, 쉬~” 했고, 아이 엄마는 “아니, 애가 방금까진 가만있다가 왜 엘리베이터 오니까 쉬 마렵다고 난리야?” 하면서 아이를 나무랐죠. 그랬더니 아이



는 더 급한 듯이 “엄마, 쉬! 쉬!!” 하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급하니까 집에 가서 볼일 보고 다시 타겠지’ 생각하고 단힘 버튼 앞으로 가서 “그럼 저희 먼저 내려갈까요?” 했더니, 그 엄마 한다는 말이 “아니요, 잠깐만요” 하더니, 글썽 아이에게 엘리베이터를 등지게 하고 그 자리에서 쉬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싫어~ 싫어~” 하는데 엄마란 사람은 “괜찮아, 언제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 그냥 여기서 봐” 하구요. 결국 아이는 엘리베이터 앞에 비가 오면 빗물이 흐를 수 있는 흠이 파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대고 쉬를 하더군요.

그러곤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전 깜짝 놀라 “아니, 아이 소변을 여기서 보게 하면 어떡해요?” 했더니 아이 엄마는 “네? 왜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엘리베이터가 화장실도 아니고 이 냄새를 어쩔 거냐고 하는 제게 아이 엄마는 오히

려 큰소리로 “아이가 급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 오줌은 약이라는 말도 못 들어보셨어요. 냄새 많이 나면, 청소아줌마가 청소하시겠죠!”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제 엄마도 다른 동네에서 몇 년째 아파트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로 예순여덟. 이젠 좀 쉬셔도 되는데, 막내아들 장가보낼 때까지 다녀야 한다면서 한사코 일하고 계십니다. 엄마에게 “엄마, 아파트 청소하면서 받는 만큼 용돈 드릴 테니까 그만 쉬세요” 하고 싶지만 저 역시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고생하시는 엄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 엄마에게 간혹 전화로 “엄마, 오늘 일 안 힘들었어?” 여쭙면 엄마는 아파트 비상계단에 대소변 보는 사람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면서 계단을 자기네 집 화장실, 쓰레기통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담배꽂초 버리는 사람, 침 빨는 사람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침을 빨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런 사람한테 엄마가 “지금 청소하는데 침 빨으시면 어떡해요?” 하면 대꾸도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으면서 참...” 이렇기도 한다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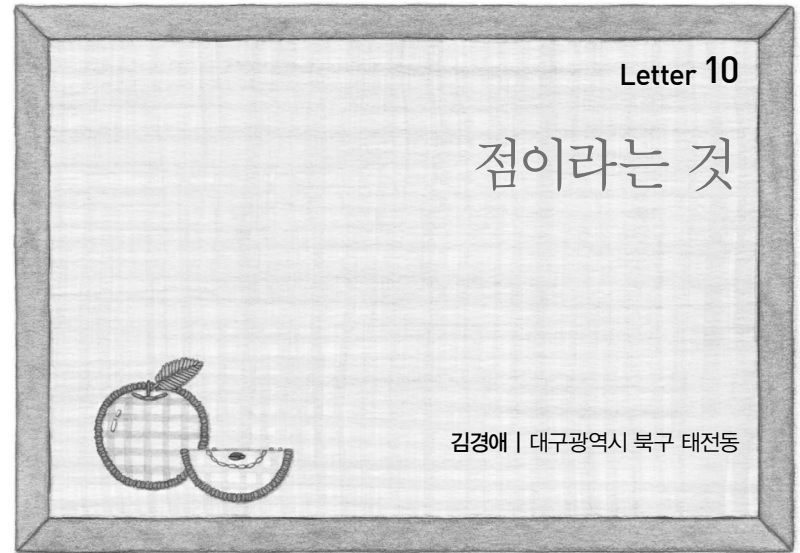
아파트 청소부 생활 몇 년째가 되니, 이젠 이런 일도 ‘허허’ 웃고 넘길 수 있다고 하시는 엄마. 그 생각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무슨 청소아줌마가 자기 아들 쉬 쓴 거까지 청소해줘야 하나 싶어서... “아니 이보세요! 청소아줌마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그리고 왜 택의 아들 오줌 눈 걸 청소아줌마가 청소해야 하냐고요?” 했더니, 그 아이 엄마 “청소아줌마 딸이야 뭐야?” 합니다. 저요 그때, 정말 그 아줌마 붙잡고 험한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있어서

꼭 참았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자, 그 아줌마는 “별꼴 다 보겠네. 지는 뭐 공중도덕 얼마나 잘 지킨다고. 웃기고 있어, 정말”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막 뛰어가더군요. 그 모습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아이가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뭘 보고 배울까 싶어요.

경비아저씨, 청소아줌마, 우리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으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개인 도우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거 그분도 똑같이 더럽다고 느끼고, 우리가 치우기 싫은 거 그분들도 치우기 싫으시겠죠.

간혹, 지역 엄마들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가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인터폰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그걸 못하자, 하루에도 몇 번씩 경비실로 전화해서 “거, 위층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그런 것도 못하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화내는 사람도 있다 하고, 경비아저씨가 밤늦게 아파트 공원에서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늦은 시간입니다. 여긴 술집이 아닙니다” 했다가 자식뻘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하셨단 말도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아파트를 벗어나면 한 집의 가장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으며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개념 없는 아줌마를 보며 우리 엄마도 저런 대우를 받으며 청소하시나 생각하니, 속상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사십 줄에 혼자 되셔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시는 우리 엄마. 어느 아파트에선 청소부아줌마로 불리지만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우에 벗어난 행동을 제발 말아주십시오.



“세 상에 소름이 짝 돋는 거 있지? 너 잘 알잖아. 내가 언제 점 같은 거 보러 다녔니? 근데 이걸 뭐, 귀신이야 그냥 귀신. 내가 앉자마자 나더러 집 옮길 생각 말라고 하더라. 나 원래 새 아파트 가고 싶어서 계속 고민했잖아.”

친구 경혜가 흥분을 해서 얘길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점, 토정비결 이런 데 일절 관심 없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니 같이 듣고 있던 윤숙이도 영미도 한 번 가보겠다면서 점집 전화번호를 바빠 물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도 같이 가자. 그거 미신 아냐. 액운을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일종의 예방대책 같은 거라고!”

오랜만에 친구 빛이 모여서 시작한 점집 얘기. 저는 친구들의 생각

과는 좀 달랐어요.

“야, 내가 만약 점쟁이면, 일단 내 앞길부터 훤히 닦아놓겠다. 왜 금쪽같은 내 미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냐 말이지. 지나간 건 대충 눈 치로 맞춘다잖아.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딱 잘라 말했지만, 사실 저, 이미 받은 마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경혜가 불러주는 점집의 전화번호를 이미 속으로 외우고 있었거든요.

제 친정엄마는 석 달에 한 번, 미용실 가듯 점을 보러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니 동생이 왜 자꾸 잔병치레를 하나 싶었더니 우리 집에 뭐가 들어왔단다. 애, 밥풀 좀 가져와라. 안방 문 위에 이거 좀 붙여야겠다.”

“이 집 팔고 아파트로 가려는데 보살님이 그러시네. 절대 안 된다고. 삼년만 더 있으면 우리 집이 쌍노른자 땅이 된대!”

하지만 쌍노른자는커녕 나중엔 집이 안 팔려서 결국 다른 점집을 찾아가 제발 집 좀 팔리게 해 달라고 애원했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또, 부적을 붙이면 동생이 건강할 거라고 했는데 동생은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쳐서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제 결혼식 때 또 점집에서 날짜를 받아오셨죠. 이것 때문에 아버지랑도 아주 크게 다투셨습니다.

“아니, 한 달, 백 일도 아니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어?!” 하는 아버지께 엄마는 “왜 말이 안 돼요? 올해 결혼하면 당신이 올해 안에 세상 뜬다는데 어떻게 식을 올려요?” 하며 펄쩍 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올해 안에 당신이 진짜 죽나 안 죽나를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제 결혼을 그냥 밀어붙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한동안 엄마에게 ‘딸내미 때문에 과부



되게 생겼다’는 시달림을 당해야했지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고 20년이 되도록 건강하게 아주 잘살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봐오며 살았던 저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집이 용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가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재작년, 형님이 ‘용하다’는 점쟁이 얘길 할 때도 그랬습니다. 조카의 진로를 놓고 점을 봤는데 ‘올해는 시험을 무조건 망치지만 낙심하지 말고 1년만 더 밀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조카가 재수한 후 다음 해에 원하는 대학에 톱 붙었습니다. 사촌 언니의 경우, 딸이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사귀어서 어쩌나 하고 있을 때, 점집에서 ‘어차피 헤어질 사람들이니, 싫은 내색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서 믿었더니 진짜 헤어지더라고요.

옆에서 이런 경우들을 보니 참 신기하고, ‘한번 갈까 말까’ 망설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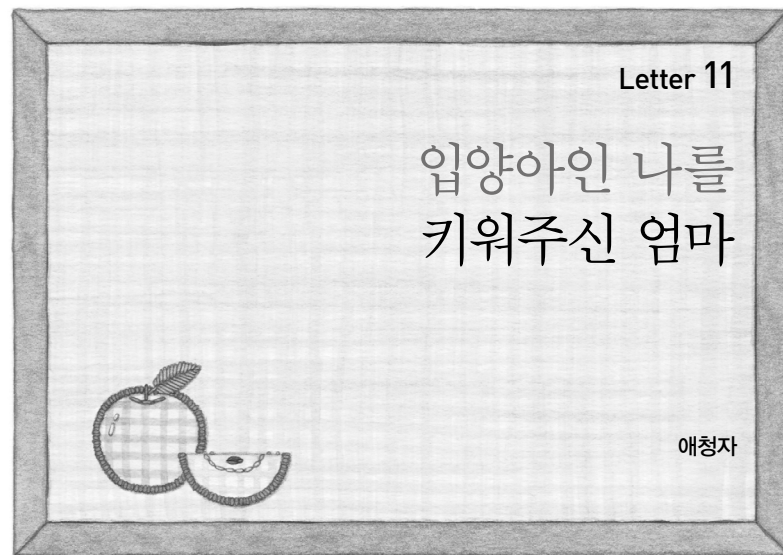
더라고요. 친구들한테는 거만하게 과학, 종교, 심리학, 철학 같은 걸 내세우면서 “나는 점 따위에 관심 없어!”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 남편이 회사를 그만 뒀을 때도, 아이들 성적이 바닥에서 올라오지 않을 때도, 또, 어딘가에 돈이 와장창 들어가 돈 모으기가 힘들 때도 ‘점이 나 보러 갈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친정엄마께서 반찬을 좀 챙겨 주러 오셨기에 “엄마, 진짜 용하다는 점집 있데요”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손사래를 치면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애, 나, 점 보러 안 다니지 5년 넘었다. 그랬더니 점집엘 다닐 때보다 안 다닐 때 더 좋은 일이 생기지 뭐냐. 생각해보니까 무언가를 맞힌다는 게 실은 이미 내가 다 애길 한 거더라고. 한번 밀밥을 슬쩍 주면 알아서 슬슬 붙어버리니까. 그러니 50 대 50, 어찌다 맞힐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좋은 점쟁이들은 그래도 ‘걱정마라, 잘될 거다’ 말해주는데 ‘누가 다칠 거다, 망한다, 갈라선다’ 말하는 사람들은 걱정거리만 보태는 거야. 싫은 소리 들으면 제 명에 못 산다고, 그러니 가지 마.”

이런 엄마를 보며 ‘우리 엄마가 웬일이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며느리 덕분인가? 아니면 속을 만큼 속았으니 이제 볼일 다 보셨다는 건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갈까 말까’ 망설였던 마음이 한풀 꺾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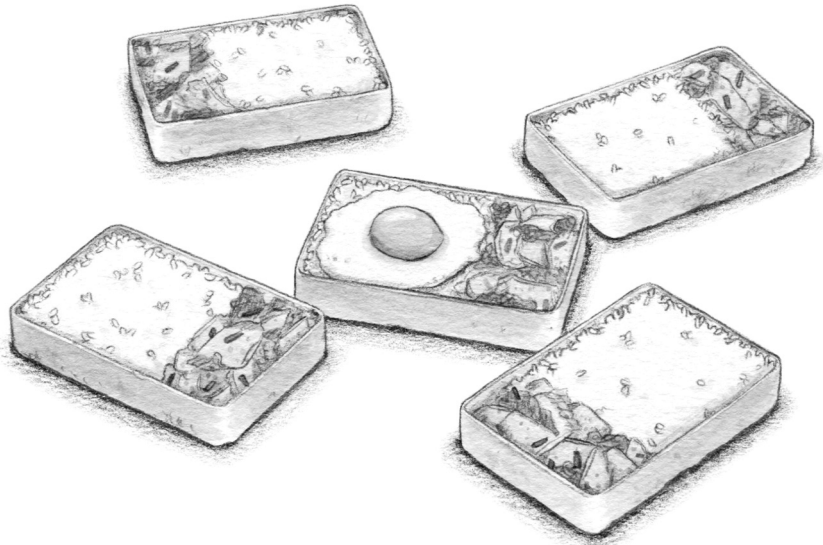
마흔이 다 될 때까지 아직 점집에 발을 들여놓은 적은 없지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다른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한 건강요리 만들기, 아이가 좋아할 만한 노래나 영화 찾기, 다치지 않게 늘 조심하기와 같은 걸 말이죠.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 화목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사연을 보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몇 년을 망설이다 이제야 편지를 보냅니다.

전 부산의 어느 변두리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절 입양하신 분이 저를 키워주신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는 딸이 없었기에 저를 입양하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넷째 오빠가 돌도 되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엄마는 우리 5남매를 키우시느라 무척이나 고생을 하셨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아무개 맥은 어찌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몰라. 데리고 온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도 될 텐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말들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며 저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저를 ‘주워 온 아이’라고 놀리는 통에 저는 뼈뿔어진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동네 가게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야야, 돈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언제든지 말하그라. 와, 그런 짓을 하노? 나는 니를 내 뱃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 알것제?” 전 그러는 엄마께 “와 나 같은 아를 데려왔는데?” 소리소리 지르면서 “다 필요 없다. 나는 이대로 살끼다. 동네에서나 학교에서도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내 보고 어찌라꼬? 내는 학교고 뭐고 다 싫다. 학교 가면 뒤에서 ‘차는 길에서 주워온 아이래’ 하면서 지들끼리 쑥떡거리고 깔깔대면서 비웃는다. 나는 모든 게 다 싫타. 엄마는 내 마음 다 모른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제 등을 토닥거리며 “이쁜 우리 딸! 그 누가 모라캐도 니는 이 어머니의 돌도 없는 사랑스러운 딸이라는 걸 명심하그라. 이제부터 그런 말들은 귀담아 듣지 마라. 한쪽 귀로 듣고 흘려 버리그라” 그렇게 달래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제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시곤 했어

요. 그 당시 김이나 계란프라이는 아주 고급 반찬이었는데, 날마다 그런 반찬을 정성스럽게 싸주셨습니다. 당신은 보리가루 죽을 드시면서도 제 도시락은 하얀 쌀밥을 싸주시던 분입니다.

당시 우리 집 식구는 4남1녀와 엄마, 할머니까지 일곱 식구였고 없는 살림이다 보니 어머니는 매일 남의 집 일을 다니셨어요. 한여름에 등에 땀띠가 돌아 고생을 하면서도 힘든 표정 한번 안 지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뒤란 담 한쪽 구석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야야, 이리 좀 온나” 하며 손짓을 하시는 거였어요. 전 통명스러운 말투로 “와? 엄마. 와 오라카노? 또 무슨 말 할라꼬?” 전 마지못해 갔고 어머니는 앞치마에서 썰지도 않은 김밥 한 줄을 꺼내주시면서 “어여 먹그라. 니 오래비들 보면 뭐라칸다.” 물까지 건네시면서 “체하지 않게 찬찬히 먹어라” 하셨습니다. 그 김밥은 어머니가 자주 일하러 가는 집에서 엄마 드시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당신 아들들보다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시던 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어머니는 급속도로 몸이 쇠약해지셨고 뭘 조금만 드셔도 체해서 바늘로 손을 자주 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어느 날 어머니는 밭에서 일하시다 쓰러져 가까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선생님이 우리 큰오빠를 가만히 부르더니 “여기서는 안 되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안 간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설득해 서울 큰 병원에 갔는데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며 모시고 집으로 가서 마음 편하게 지내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속을 너무 많이 썩어 병을 얻은 게 아닌가 생각하니 너무도 미안해서 엄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엄마 앞에서 보일 수가 없어 화장실로 들어가 내 자신을

마구 원망했습니다. '병에 걸리려면 내가 걸려야 하는 데 왜 불쌍한 우리 엄마가 걸린 걸까? 다 나 때문이다. 하느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느님, 이건 아니잖아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을 반성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의 몸은 날로 쇠약해지며 흰죽과 물만 겨우 삼키며 힘없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서도 저희들 걱정만 하셨습니다.

“내가 오래 오래 살아서 우리 고명딸까지 결혼시켜 얼라 낳는 것까지 보고 가야 할 텐데, 미안하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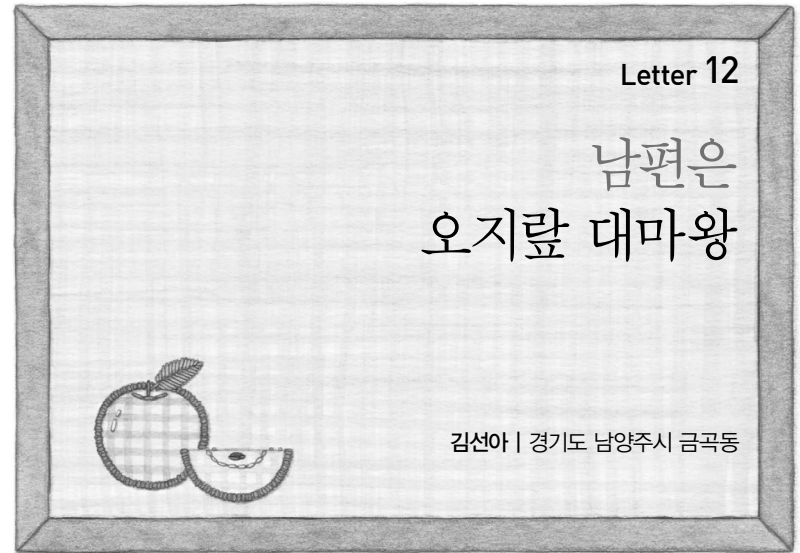
“엄마, 뭘 소리하노? 엄마가 와 죽노?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릴까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 딸. 이제 철이 드는가보다. 고맙데이 우리딸” 하시며 저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죽고 없어도 잘살아야 된데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 위에 좋다는 약초를 캐어 약탕기에 넣고 정성껏 끓여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의 병을 고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날 데려다 키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있어서 지금에 내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엄마 절대 못 보내드린다. 나는 우리 엄마 없이 단 하루도 못 사는 데...’ 하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느 가을, 저희 5남매를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고생만 하고 맛있는 음식 한번 못 드시고 가신 불쌍한 엄마. 엄마께 너무도 많은 죄를 지은 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엄마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여 내 자식을 키우다보니 더욱더 간절히 엄마 생각이 납니다.

“엄마, 그곳에서 아버지랑 행복하게 사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11살 많습니다. 처음엔 호감이 없었지만 만나다 보니, 심성이 착하고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하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착하고 정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것 때문에 속에서 뭔가 ‘욱’ 하는 게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혼 초, 하루는 퇴근을 한 남편이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손님을 데려 왔더라고요.

“자기야, 날도 더운데 집 앞에서 할아버지가 파지 모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모시고 왔어. 잘했지?”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잘했네. 근데 찬이 별이 없어서... 미리 전화라도 주지 그랬어” 했더니, 남편은 “에이, 우리 먹는 반찬에 밥 한 공기만 더 올리면 되지 뭐 귀찮아” 하더군요. 물론, 남편이 좋은 마음은

로 그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 연락 없이 그렇게 불쑥 손님을 데려오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불편해 하실까봐 내색도 못하고 부랴부랴 저녁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남편 때문에 맘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모처럼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오랜만에 하는 남편과의 외출이라 안 입던 원피스도 입고, 화장도 하고 나름 한껏 멋을 내고 집을 나섰는데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이삿짐을 싣는 트럭이 한 대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는데, 같이 걸던 남편이 갑자기 발길을 ‘획’ 돌리더니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사 가시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러자, 짐을 나르시던 할머니는 “응,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래서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작은 데로 옮기는 거여”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포장이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식들 힘들게 번 돈으로 비싼 포장이사할 수 없었다면서 그래서 인부 몇 명이랑 같이 짐을 나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불안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자기야, 안 되겠다. 우리 영화는 다음 주에 보러가자”고 합니다.

“왜에~.”

“할머니, 이거 좀 도와드리고 가려고.”

“일하시는 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 그래야 해.”

“몇 분 안 계시잖아. 젊은 사람도 힘든데, 할머니 언 얼마나 힘드시겠어. 응? 미안~”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짐을 나르더군요. 아, 어찌겠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평소 안 신던 뽕족구두를 신은 채로 맘을 뽕뽕 흘리면서 하루종일 무거운 이삿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말도 안 해요. 이사 가신 곳까지 따라가선, 바닥 닦고,

욕실 청소까지 다 해드리고… 남편이 하니 저도 또 해야 하고… 그렇게 해가 다 진 다음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그냥 뻘어 버렸습니다.

‘괜히 남편 말 듣고 이사 도와드렸어.’

솔직히 짜증나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막상 도와드리고 나니 기분이 좀 좋긴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한 건 뭐냐면요. 왜 이런 일이 제 남편한테만 자주 생기느냐는 겁니다. 길을 헤매시는 할머니를 마주치게 돼서 도와드리고, 휴대폰을 주웠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그 더운 날 집까지 들고와 충전해서 휴대폰 주인 갖다 주고,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친구가 많이 어렵다며 열심히 부은 적금까지 깨서 도와준 적도 있어요.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좋은 일 한다는 건 알겠는데 화는 나고, 그럼 난 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맘고생을 좀 했는데, 작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가 17개월쯤 되니까 걷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사고를 치는 일도 생기더군요. 최근 들어 콧바람이 들었는지 자꾸 나가자고 보채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밖으로 나갔는데 아들이 현관에 있는 우산을 집어 들고 다다다 뛰어가다가 그만 우산 끝으로 주차된 차를 짝악 긁고 말았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를 혼낼 수도 없고 해서 차에 남겨진 번호로 전화했더니 차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사 오기 전 알고 지내던 이웃이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자, 그분도 “이사 하셨다더니 이쪽으로 오셨나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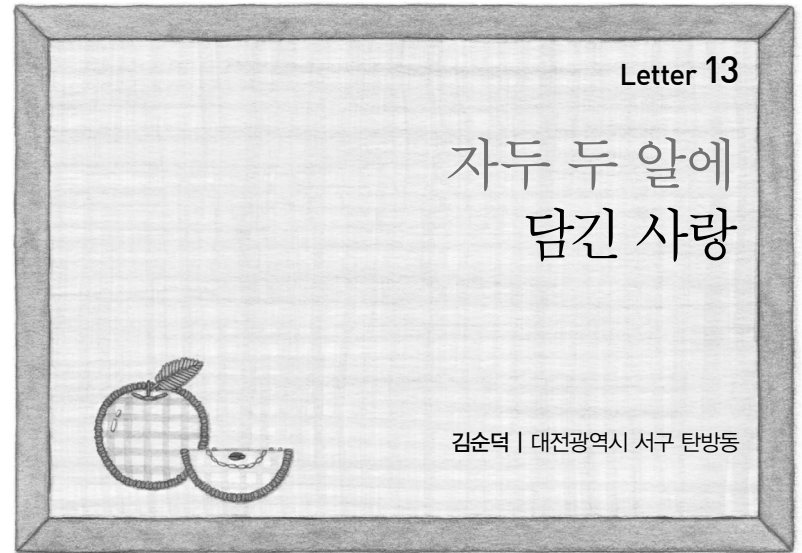
하시기에 “네,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우산으로 차를 긁어서, 수리비는 바로 물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번거롭게 해서 화가 나셨을 법도 한데, 그분이 “아들 낳으셨나 봐요. 축하해요! 안 그래도 저렇게 착하게 사는 분들이 왜 아기가 안 생길까 걱정했는데… 저, 예전에 남편 분한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라이트 안 끄고 들어가서 차가 피졌는데 그때도 충전해 주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나 했는데, 잘됐어요! 아기 낳으신 거 축하 선물 겸 해서, 이거 수리는 제가 그냥 할게요” 하는 거였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요즘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받게 됐어요. 남편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남편이 착하게 살아서 돌려받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남편 참 잘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기 가졌을 때 태교를 남편이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17개월 된 아들을 보면 남편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박스가 잔뜩 쌓인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를 보면 어디서 배웠는지 끄끙거리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밀어드리기도 하구요. 자기보다 큰 아이가 넘어지는 걸 보면 달려가서 손도 털어주고, 다리도 후후 불어주면서 도와주더라고요. 가끔 이런 두 남자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참 행복합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가 나중에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좋지만 그보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큼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남편의 오지랖에도 화가 덜 나기도 하구요. 그래도 남편한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보! 착한 일 하는 건 좋지만, 큰일은 나한테 미리 상의 좀 해줘요. 집에 손님 모시고 올 땐, 미리 연락도 좀 주구요. 알았죠!”



날 씨가 가물어 햇살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올해는 과일이 참 달다. 대충 골라서 사온 과일도 흐르는 물에 씻어서 한 입 베어 물면 그 달달한 과육이 입안에 가득하다.

옛그제 시장에서 한 바구니에 만 원을 주고 사온 자두도 그랬다. 그 달달한 자두를 먹다가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친구가 생각나서 씨알이 굵은 자두 몇 알을 골라 놓았다가 이튿날 출근을 하는데 가지고 나셨다.

그런데 신호대기에 걸릴 때마다 한 알씩 먹고 나니 자두가 달랑 두 개 남았다. 그마저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만 전네 줄 수 없어서 망설이다 보니 그 자두 두 알이 호주머니 속에서 불거져 나와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문득 저쪽 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엇그제 국군병원으로 배치를 받고 온 이등병 둘이 내 눈에 들어왔다. 요즈음 군대가 많이 부드러워져서 얼차려나 지시, 혹은 선임이 후임을 길들이기 하는 식의 관습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라서 얼마 전 온 이등병은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일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가만히 있어도 무더운 날씨에 땀을 뚝뚝 흘리며 일하고 있는 그 이등병에게 내 주머니 속에 든 자두를 한 알씩 주고 싶었다.

내가 조심조심 다가가서, 아직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이등병에게 호주머니 속에 든 자두 한 알을 꺼내주면서 “별건 아닌데 자두가 아주 달아요.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전에 얼른 먹어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며 냉큼 받아서 한입 크게 베어 물었다. 그러더니 내가 말릴 사이도 없이 저만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기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이거 너 먹어!” 하면서 팔을 쑥 내밀어 반쯤 남은 그 자두를 선뜻 건네주는 게 아닌가! 나는 너무나 놀라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기 한 알 더 있으니까, 그건 혼자 다 먹어도 돼요.”

그 말과 동시에 나는 남아있던 자두 한 알을 꺼내서 맞은편에 있는 이등병에게 건네주었다. 둘은 잠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기특한지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문득 그 이등병들의 모습 위로 철원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내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작년 4월에 몸무게가 47킬로그램인 몸이 허약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 나는 한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리 딸 둘을 낳고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는 아들이다. 그 아들이 힘든 훈련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바람이 불어도 아들 걱정, 비가 내려도 아들 생각, 일찍 찾아 온 무더위로 등줄기에 땀이 흘러도 아들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러나 15사단에서 최전방 철책근무를 마치고 휴가를 받아 집에 온 아들 모습에 우리 가족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떡 벌어진 어깨, 근육이 잡힌 허벅지, 종아리와 팔뚝은 돌덩이처럼 단단했고, 적당하게 살이 오르고 구릿빛으로 그을린 아들의 모습은 건강미가 철철 넘쳐흘렀다. 군대 가기 전에는 온갖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살이 찌지 않던 녀석이 군대에 가서 몇 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13킬로나 늘었다. 아들은 예전의 비쩍 마르고 허약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늠름하고 튼실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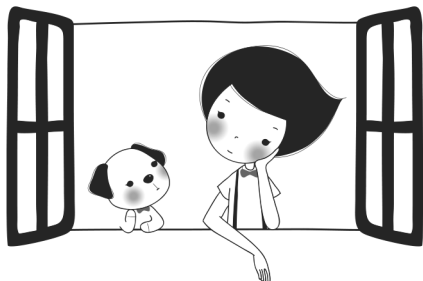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해 오거나 편지를 보내올 때마다 “선임들이 잘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또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제 걱정은 눈곱만큼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냥 엄마가 걱정할까봐 위로하느라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마도 내 아들 곁에도 한 알의 자두를 나누어 먹을 만큼의 따뜻한 선임과 동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삼라만상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철책선에 서서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이 가슴에 와 닿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면 내 아들!

앞으로 남은 군 생활 동안, 나의 아들이 따뜻한 마음 받을 가진 선임이 되기를 소망한다. 자두 한 알을 기꺼이 후임이나 동기와 나누어 먹을 줄 아는 그런 온기 있는 선임이 되리라 믿는다.

저는 두의사가 되고 보어요♡

배준 부산서 해운대구 반송 2동



부산에 살고 중학교 2학년인 준이에요.
 2년전에 우리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형제가 없는데 여동생 같이 귀여워요.
 근데 왜가 모르는데 얼마안있다가 죽었어요.
 그때 알아요. 말 못하는 동물은 아프면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불쌍한 일이 생기^는걸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집에 없을때보다 더 많이 슬펐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커서 어른이 되어
 수의사가 되어서 꼭 아픈동물들을 지켜주게요
 초등학교때 끝까지였던 제가 중학생 되면서
 열심히 하기 했어요. 영어가 많이 어려웠어요.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을때가 많아요.
 재밌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막 벽에 붙어있는
 나의 꿈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최고로 잘하게 방학직전에 기말고사인데
 우리반에서 6등했어요.
 휴~중 길로쌤이 수의사도 의사라서 전교5등
 안에 들어야 한다면 두의사가 아닐 사육사는
 어쩌냐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또 알았습시다.



제가 자꾸가는 이비인후과 의사쌤이
전교 5등 안에 들어서 의사쌤이 된것을요.
그전까진 그렇게 가자 대단해 보이게 않고
커다란 별테안경을 쓰는 행한 아저씨 같았
거든요. 별명이 그래서 맹거쌤!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니...
하지만 저는 가신 있어요.
골등이던 제가 더 어려운 중학생때 6등 되었으니
6등하던 제가 더 더더 어려운 고등학생때
진짜 알아요? 전교 5등이 될지요. 천박 있는 우리
엄마께서 제 생애 제일 중요 한게 바깥
마음이랑 하고 설문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래요. 엄마는 드라마작가가 하고 설문 일
안테, 맨날 텔레비전 보십니다.
말도 못하는 약한 동물을 병을 고쳐주는 어른이



될래요. 그럴려고 겨울방학이지만 핸드폰도 끄고
게임도 끄고 열심히 공부해요.
친구들은 대학 소용없고 노는것도 때가 있다고
같이 피씨방엘 가자고 그래요.
저도 2년전엔 똑같이 생각했어요.
겨울방학때 무조건 누워서고 겁하긴
또 새벽까지 안자고 러닝맨보고.
그게 방학의 맛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가 없어요.
겨울방학때 열심히 해야 영어를 보충해야
되니까요. 저는요. 반드시 수의사 의사쌤이
될거니까요. 그게 저의 어른인 모습이에요.
화이팅이요!!!



모형으로만 보던 전투기를 실물로 만나볼 수 있는 곳

IBK기업은행 오목교역지점 거래고객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창로 상근부회장

글 | 김하늘 (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색종이로 비행기 한 번 안 접어 본 사람, 장난감 블록으로
비행기 한 번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있을까?
“슈웅~ 승~” 입으로 소리를 내며 비행기를 날리고,
“난 비행기 타봤다” 이 한마디로 세련됨과 촌스러움을 나누던 때를
떠올려 보면,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행글라이더나 고무동력기를 만들
어 날릴 만큼 비행기를 좋아했던 사
람,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드론을 조
종하며 대리만족 하고 있는 사람, 비
행기 조종사·정비사·공군 등 항공관
련 직종에 꿈을 두고 있는 자녀가 있
는 사람이라면 항공 산업에 대해 갖
고 있던 막연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걸음을 옮겨보자.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공항에
서 개최하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Seou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이하 서울 ADEX) 2015’에 방문하면
TV나 잡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실물
전투기와 항공기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국내 79개 항공우주 관련 업체가 정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비영리단체로, 서울 ADEX 개최 외에도 국내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항공기 부품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R&D 예산 지원, 항공관련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 서울 ADEX는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KT-1, T-50, 수리온)와 지상장비(자주포, 전차, 장갑차, 군용차량 등)의 우수성을 알려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외 초청 바이어와 전시참가업체 간 B2B

미팅을 주선하는 것이지요. 금년에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세미나와 기술교류 행사를 동시에 개최해, 국내 업체 및 관련 기관이 선진업체들의 최신기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017년도에 예정돼 있는 미공군 훈련기 교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후속물량까지 감안하면 350~500여 대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엄청난 사업이다.

전시회를 개최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국내 항공기 및 지상 장비를 알리고 수출하는 것이지만, 전시 참가자와 전문 관람객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도 방문할 수 있게 퍼블릭데이(10월 24~25일)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매회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행사답게 볼거리도 다양하다. 이 기간에는 대한민국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과 미공군 최신예전투기인 F-22, F-16 등의 시범비행을 관람할 수 있고, 대한민국

공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사람 중 국민조종사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행사 당일 T-50 및 KT-1 훈련기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이 외에도 공군과 대한항공이 주최하는 비행시뮬레이션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 및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행사장 방문 전 서울 ADEX 웹사이트(<http://www.seouladex.com/>)를 통해 항공기 비행 일정과 각종 부대행사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좋다.

김창로 상근부회장은 “서울 ADEX는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편안한 신발과 복장을 착용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기와 각종 장비들이 전시돼 있는 실내전시장

을 관람한 후, 실물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을 방문하고, 군에서 준비한 의의대 및 군악대 등 부대행사까지 보면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야외전시장에서는 미국 최첨단 전투기와 글로벌 호크(무인기), 국내에서 개발한 T-50 및 수리온 헬기를 꼭 보시고, 사진에 담아가시길 추천합니다”라며 관람 요령을 설명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ADEX 공식은행으로서 인연을 맺고 있는 IBK기업은행 오목교역지점 백영수 지점장은 “몇 년 전부터 IBK기업은행은 기업만 거래하는 곳이 아닌 누구나 거래하는 은행으로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ADEX 후원 사업이 같은 기업은행의 홍보 콘셉트와 잘 맞아서 참여하게 됐는데, 올해에도



좋은 행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서울 ADEX 행사가 싱가포르 및 두바이 에어쇼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범정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국내 항공산업이 '글로벌 7'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나설 계획 이라고 한다.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향후 10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이다.



IBK기업은행 오목교역지점 백영수 지점장(왼쪽)과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창로 상근부회장(오른쪽)

서울 ADEX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 3가지

1. 실물 항공기와 각종 장비들이 전시돼 있는 실내·외 전시장
2.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곡예비행과 미공군 최신 전투기의 시범 비행
3. 공군이 준비한 의장대 및 군악대 등 부대행사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대표 하성용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02-761-1101)

홈페이지 <http://www.aerospace.or.kr>



IBK와 함께하는 특별한 기쁨 IBK 평생가족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단, 입출금식은 1인 1계좌)
상품구성 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통합한도 적립식 (1인당 월 적립 통합 200만원), 거치식 (1인당 통합 1억원)
(2015.7.27 현재, 세전 단위·연%)

적용금리

구분 (1년제 기준)	적립식		거치식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실세리정기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기본금리	1,65	1,55	1,55	1,70
최고금리	2,05	1,95	1,75	1,90

제공혜택

- 입출금식 : 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 10회)면제 등 각종 수수료 면제
- 적립식 : 기본금리(추후변동가능) + 고객별 우대 최고 연 0.1%p + 주거래 우대 연 0.3%p
- 거치식 : 기본금리(추후변동가능) + 고객별 우대 최고 연 0.05%p + 주거래 우대 연 0.15%p

*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은 조건 충족 시 제공되며, 최고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시 적용됩니다.
 * 본 내용은 요약본으로 우대금리 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5-1811호 (2015.7.10) 게시기간: 2016.7.31

이 예금은 예금지보통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예금지보통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별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1332, IBK기업은행☎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융·청정을 받지 않습니다. 유희경영위원 사칭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전, 오늘 세븐에이트 해요”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 말린 차 화연

편하고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느낌-세븐에이트

세척커버는 물론 스타일리시한 헤어컬러까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아름다움을 찾어드립니다.

- 4호 (저민스민 방제)
- 5호 (천연향차)
- 6호 (저민스민 갈색)
- 7호 (저민스민 흑갈색)



스킨케어 따라
용도에 맞게 골라 쓰세요

1 세븐에이트 헤어 미스트가림 | 세븐에이트 무중량 컬러크림 | 세븐에이트 민민향차
2 세븐에이트 샴푸 컬러크림 | 세븐에이트 워셔링제 | 세븐에이트 흑색 커어 스프레이

| 소비자상담실 | 080-547-3571 |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양희은·서경석
입니다

대전
92.5/91.3

삼척
101.5/93.1

춘천
92.3/88.9

서울
95.9

전주
101.7/94.3

대구
96.5

부산
95.9/106.5

제주
92.0(권일악)
92.1(삼대봉)

급이급이 펼쳐진 지리산둘레길을 걷다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의 정혜숙 씨를 찾아서

글 | 성기애 (여성시대 작가) 사진 | 송인혁

“안녕하세요? 식당은 이쪽으로 쪽 올라가시면 몇 군데가 있고요, 둘레길 입구는 저쪽입니다. 저기 저 붉은색 지붕이 보이시죠, 그쪽으로 쪽 따라가시면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즐거운 여행되십시오.”

여성시대 가족 정혜숙 씨는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에서 길을 찾아 나선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다. 지리산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나지막이 소리 내어 보면, 어느새 온몸에 맑은 바람이 이는 듯하다. 그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근무하는 즐거움이 꽤나 쓸쓸하다고 한다.

“하루 안내센터를 찾는 분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길을 걷겠다고 나선 분들이라 그런지 다들 밝고 맑은 얼굴로 오십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만 만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근무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지리산둘레길은 걷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여행의 낭만을 찾는 이들에게 최고의 도보여행지로 꼽히는 곳이다. 지리산 둘레 3개 도 전북, 전남, 경남의 5개 시·군인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의 120여 개 마을을 잇는 300km의 유장한 길이다. 숲길, 강변길,



마을길이 이어지고 넉넉한 품을 자랑하는 지리산을 조망하며 걷는 산자락 논두렁길이 순하게 펼쳐진다.

총 22구간으로 이어진 길의 시작점인 1구간은 주천-운봉 구간이다. 정혜숙 씨를 따라 그 길을 걸었다. <여기서부터 남원 지리산둘레길 주천-운봉(제1구간) 시작점입니다>라는 안내판을 따라 걷다보면 내송마을이 나오고 마을 산발을 지나면 어느새 숲 그늘이 감싸 안는다. 남성의 근육을 닮았다는 서어나무 그늘 아래 잠깐 다리쉬를 하고 구룡치를 향해 오르막길을 오르면, 길 양옆으로 붉은 몸의 적송 군락지가 문득 다가선다. 소나무를 스치고 지나온 바람이 얼굴에 닿는 순간, 숲이 나에게만 전하는 은밀한 이야기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포근포근한 흙길이 한동안 이어진다. 길 이름도 예쁜 ‘사무락다무락’길이다. 사무는 좋은 징조나 전망을 뜻하는 말이며 다무락은 담벼락의 사투리라고 한다. 좋은 징조를 비는 담벼락이라는 뜻으로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무사함을 빌고 액운을 막아 화를 없애고자 지날 때마다 이곳에 기도하며 돌을 쌓아 올렸다고 한다.





광주에서 온 중학생 아들과 아버지가 마음 맞춰 길을 걷고, 순천에서 왔다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지난번엔 친구와 와서 걸었는데 이번엔 혼자 조용히 걷고 싶어왔다고 했다. 부부가 손을 잡고, 연인이 소곤거리며, 친구와 활기차게 흠길을 밟는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은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고 <걷기에찬>을 쓴 다비드 르 브르통은 말한다.

걷기를 통해 세계를 타인을 그리고 나를 만나는 것이다. 다리를 움직여 걷는 행위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길을 안내하는 정혜숙 씨의 삶의 길은 어땠는지 물으니, 한참을 뜸을 들인다.

“음... 중고등학교시절 소설가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어요. 졸업을 하고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놀러 갔다가 남편을 만나 25살에 결혼하고 아들, 딸을 낳고 중간중간 일도 했지요. 서점에서 일을 하고, 아... 잠깐 식당 서빙일도 했었어요. 체력이 달려 몇 달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사는 분들을 통해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기 안내센터에 앉아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고, 글도 쓰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일만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저 혼자 저를 돌아보기 위해 그냥 쓰고 있어요.”



안경 너머 신중한 눈빛과 느릿느릿 진중한 말투에 삶을 얼마나 진솔하게 대하고 있는 지가 느껴진다.

정혜숙 씨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리산둘레길을 꼭 닦아있었다. 소란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숲길 같은.

이제 가을이다. 가을바람 불거들랑 바람구두를 신고 굵이굵이 순한 짐승의 잔등처럼 펼쳐진 지리산둘레길을 걸어보시길 권한다. 바람과 숲이 전하는 말에 귀를 쫓긋 세우고 걷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



코너 속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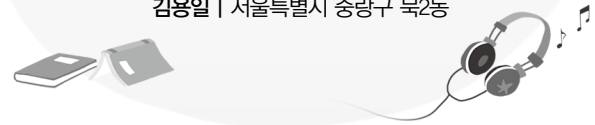
일러스트 | 조신애

- 83 장용의 단필총 19년 전 권 병장과 펜팔
- 89 장용의 단필총 퍼진 라면
- 94 나의 연애시대 나이트에서의 인연
- 97 일요일엔 편지를 말문을 담은 아들에게

장용의 단 · 필 · 총

19년 전 권 병장과
펜팔

김용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2동



1996년 봄, 저는 꿈에 그리던 병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병장이 되면 제대하면 뭐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병장 고참들을 보면 자유시간에 대학 출신들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던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지 뭔가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에 꽂혀서 열중을 했는데, 저보다 세 달 먼저 온 권 병장님은 말년병장이었는데 늘 무심한 듯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만 하더라고요.

“권 병장님, 왜 늘 기타 치고 노래만 부르십니까?”

“오~ 이번에 병장 단 물병장 김 병장이네? 난 제대하면 가수가 될 거야. 지금 한창 작사 작곡도 끝나간다. 그녀에게 이 노래를 꼭 들려줘야지.”

“싱어송라이터 정말 멋집니다. 그 여성분 좋겠습니다”라고는 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면 권 병장님은 박진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몬스터급 얼굴에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왜? 너도 내 외모 때문에 안 될 거라 생각하나보지? 야! 김 병장, 박진영 봐라. 나보다 더 못생긴 얼굴이지만 댄스가수로 잘나가잖아.”

“아... 아닙니다. 권 병장님은 박진영보다 더 멋진 가수가 될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니가 가수가 되면, 난 영화배우다!’라고 비웃었죠. 권 병장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옆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요책이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표지모델로 한 가요책을 몰래 슬쩍했고 수많은 노래를 불러보다가 우연히 마지막 쪽을 보니 펜팔을 원하는 많은 여학생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 6개월은 여기다 올인한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어서 2살에서 4살 어린 여성을 고르고 골랐는데도 무려 50명이 넘었습니다. 개인정비시간 때마다 펜팔을 쓰기 시작했는데 군사우편이어서인지 늦게 답장이 왔고 한 달이 지나자 저에게 오는 편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죠. 50명의 여성들에게 똑같은 내용의 글을 보냈는데 무려 29명에게 답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야 군사우편으로 보냈지만 그녀들의 편지는 서울, 경기도, 부산, 경상도 등 팔도에서 오는데 나중에는 소대장님이 “김 병장 상병 때까지는 편지도 얼마 오지 않더니 병장되더니 갑자기 웬 여자들에게 편지가 많이 오나?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 물으셨습니다.

“네, 요즘 펜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대원 70명에게 오는 편지보다 저 한 명에게 오는 편지가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29명의 펜팔녀들에게 답장을 하느라 실수도 많이 하고 했던 말을 또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겉봉투에 미정이라고 쓰고 내용에는 미숙이라고 써서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대의 후임병들은 “김 병장님 혼자만 펜팔하지 말고 양도 좀 하십쇼. 저희도 힘든 군 생활인데 여자 편지 받고 싶습니다” 애원했고 고참들도 저에게 양도를 강요했습니다. 저도 많은 여성들에게 편지 쓰는 것이 힘들어서 양도를 해야 하는데 편지만 왔다 갔다 하는 터라 외모를 알 길이 없어서 펜팔 여성들에게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29명 중 23명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중 3명이 제 맘에 드는 스타일이어서 그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을 고참순으로 차례로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는 펜팔 붐이 일어서 개인정비시간에 편지 쓰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때 인기가 높았던 체력단련장은 썰렁 그 자체였습니다. 병사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장을 야심차게 만들었던 중대장님이 “야! 김용일 병장, 너 때문에 펜팔하느라 우리 부대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던데 참말인가?” 그렇게 중대장님 눈에는 찍혔지만 정적인 성격의 인사계님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유난히 날씨가 좋았던 토요일 오후,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제 후임병 중 우리 중대에서 제일 잘 생기고 몸매도 좋은 흡사 권상우 스타일의 정 상병이 저에게 “김 병장님, 저도 외롭습니다. 얼마 전 제 여친이 고무신 거꾸로 신어서...”라고 해서 인천에 사는 아주 글을 잘 썼고 음악을 좋아했던 여성을 양도해 주었죠. 제가 양



도한 펜팔녀에게 정 상병이 자신의 사진을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진을 본 여성은 반했을 것이고 문제의 그 펜팔여성이 친구와 정 상병에게 면회를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난리가 났고 제가 펜팔 한 29명 중 처음으로 면회를 온 것이어서 저와 정 상병은 깨끗한 일계장(최고급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그 짧은 머리를 빗고 또 빗었습니다. 그 펜팔녀의 친구는 제가 상대해줘야 했기에. 위병소에 만난 그녀는 저에게 사진만 안 보냈지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김남주 씨를 좀 닮은 것 같았고 단발머리에 날씬한 몸매로 정 상병에게 양도한 것이 뼈저리게 후회가 되었지만 때는 늦었고, 그녀의 친구는 뭐 건강하고 착하게 생긴 스타일이었습니다. 막 이야기를 꽃피우며 그녀들이 가지고 온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권 병장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인간 좀 있으면 제대하면서 뭘 그렇게 여자를 밝혀 저 얼굴 소개해 줬다간 여자들에게 몰매 맞지.’ 생각은 이렇게 했지만 “아! 권 병장님 오셨습니까?” 하자마자 권 병장과 김남주 닮은 그녀의 눈에서 스파크가 파바박 튀더군요.

“어, 누나 여긴 웬일이예요?”

“어? 너 이 부대에 있었니? 어머 어떡해?”

“누나, 내가 그렇게 면회와 달라고 할 땐 안 오더니. 김 병장, 정 상병,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식들아!”

순식간에 위병소는 이수라장이 되었고, 여자 분은 “어머! 정 상병님, 제가 다음에 편지할게요. 그럼 이만” 하더니 친구와 후다닥 위병소를 빠져 나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저와 정 상병은 권 병장에게 분노의 일장연설을 들어야 했죠.

“야, 김 병장! 너 어떻게 알고 내가 좋아하는 그녀를 정 상병에게

소개해 줘냐? 너 그때 내 가요책 훑쳐간 것 알고도 모른 척 해주었는데 내 책 훑쳐가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까지 훑쳐가?”

“죄송합니다, 권 병장님. 제가 사진 받아둔 여자 3명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그동안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노래 부르고 작사 작곡도 했는데 저 뺨질이같이 생긴 정 상병에게 양도해? 으악! 열 받아!”

권 병장은 인천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 입대했는데 그때 좋아하던 여자 선배가 그 펜팔녀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신승훈 씨를 좋아해서 어울리지도 않은 안경까지 써가며 노래 연습을 했던 권 병장인데, 하필이면 자기와 너무나 비교되는 정 상병에게 소개해 주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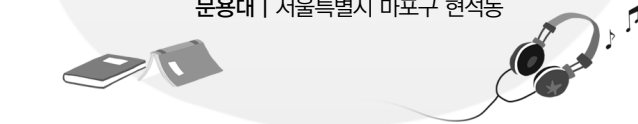
이 사실은 삼시간에 중대장님 귀에까지 들어갔고 “내 이럴 줄 알았어. 김 병장, 열심히 체력단련하던 병사들 글만 쓰게 만들더니 제대 얼마 안 남은 권 병장 탈영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펜팔하는 인원 있으면 전부 뺑뺑이다! 뺑뺑이! 알았어!”

병장된 기념으로 우연히 알게 된 펜팔. 그렇게 우리 중대에 불던 펜팔신드롬은 훌쩍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저는 그 3명 중 경기도 양평에 살던 딱따구리 하면 생각나는 개그우먼과 이름이 똑같은 여성과 몰래 펜팔을 해서 제대 후 1년 반 동안 뜨겁게 사귀었고, 정 상병과 김남주 닮은 그 펜팔 여성은 2001년에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지금까지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권 병장의 소식은 잘 들을 수 없었는데 몇 년 전 슈퍼스타K에 나가서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제 방 한구석에는 1996년 저와 펜팔했던 소녀들의 편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장용의 단·필·충

퍼진 라면

문용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지금도 군대에서 라면 주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만해도 일요일 점심 특식으로 라면이 나오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냉면도 나왔지만, 군대에서 식판에 배급받아 먹는 라면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요. 특히 신병일 때 먹는 첫 라면은 프랑스 풀코스 요리보다도 천배는 맛있지요.

오늘은 그 라면에 얹힌 슬픈 전설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춘추시대의 주옥같은 말씀과 행동으로 성인의 경지에 오르신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신 일이 있습니다. ‘군자의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꺾돌이의 배식 실패는 삼족을 멸하는 중죄라!’ 정말 주옥같은 말씀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배식에 실패한 용사는 단 한 명도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배식 실패는 가문의 수치인지라 스스로 숨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대에서 배식에 실패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 다음 말은 국방부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일요일 점심 특식으로 나오는 라면도 철저한 계획과 통제 속에 엄격히 배식되는데, 배식의 핵심전략전술은 처음엔 정량보다 조금씩 주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그러다보면 전원이 식사를 마칠 무렵이면 라면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은 라면은 당연히 조금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퍼진 라면은 어떻게 하나요? 개한테 줍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 귀하고 귀한 음식, 라면을 개한테 주다니요. 조금 퍼졌기로서니 어찌 사람도 접하기 힘든 천혜보신식 라면을 개한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신병이라 확대해석한다고요? 아닙니다. 저희끼리 '보성 돌아이'라 부르던 전라도 보성 출신 김택수 상병이 있었는데, 4차원 비정상 보성 출신 김 상병도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한테 줄 라면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김 상병이 취사병에게 접근했습니다.

“라면 남제~ 잉?”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은 거 있다가 자한테 줘. 알겠제?”

“남는 거 말입니까? 퍼져서 못 묵습니다. 맛 없어예.”

“확! 뭘 말이 그래 많나? 강 줘라! 맛은 우리가 평가할 텐게.”

“예, 알겠습니다.”

“자~ 인자 야그 끝났고. 문 이병, 너는 거멍이네 앞에 있다가 야가 라면 갖고 오면 단단히 챙겨갖고 후딱 튀 와야 한다 잉. 알겠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밀약은 완성되었고, 저는 취사반 뒷문, 개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취사병은 총 3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물론 본인의 개가 아니라 인사계가 맡긴 개였고 이름은 모두 ‘거멍이’였습니다. 거멍이 원, 거멍이 투, 거멍이 쓰리. 인사계가 색맹이 있는지 분명 개들은 누런 황개인데도 검정색 이미지가 묻어나는 거멍이라고 이

름을 붙여줬는데, 취사병의 미션은 거멍이들이 살이 토실토실 잘 오르도록 잘 먹이는 거였습니다.

여하튼 저는 김 상병의 찬합과 식판을 들고 취사반 뒷문 개집 맞은 편에 자리 잡고 부동자세로 대기하고 있었고, 취사병이 라면을 가지고 나오자 저는 찬합과 식판에 퍼진 라면을 옮겨 담아 김 상병에게 상납코자 내무반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뭔가를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본 동기 녀석이 묻는 겁니다.

“문 이병! 그거 뭐야?”

“어? 이거? 라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만, 그것이 그토록 큰 문제로 변질 것이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맹자께서 인간의 본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식탐동건(인간이 먹을 것을 탐하는 것은 개와 다름이 없다)! 정확히 그 말이 맞더군요.

“라면? 어디서 났는데?”

“취사반 뒷문, 거멍이네 앞!”

“그래? 지금 가도 남아 있을까?”

“글쎄? 아직 조금 남아 있을 걸?”

“고웨이?”

그러더니 뭐가 후다닥 하는가 싶더니만, 2소대, 3소대 쪽에서 갑자기 10여 명이 우르르 취사반 쪽으로 전력질주를 하는 겁니다. 식후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던 연대 인사과장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 왔고,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부랴부랴 뛰쳐나와 2소대원들의 뒤를 따라 전력질주했고, 마침 자대복귀 중이던 헌병대 선임 하사도 그 모습을 보고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오인하여 그 뒤를 추격

하는 등, 총 20여 명이 개집 앞으로 총 출동하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내무반에서 김 상병에게 퍼진 라면을 상납하고 있던 중이라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인사과장과 헌병대 선임하사가 도착해서 발견한 모습은 찬합에 퍼진 라면을 배급받아 개집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퍼진 라면을 막 흡입하려고 자세를 잡고 있던 병사들과 그들을 선망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멍이 원, 투, 쓰리의 애처로운 모습이 들어 왔습니다. 허탈한 헌병대 선임하사는 바로 인사계를 호출하였고, 전후사정을 알게 된 인사계가 저희 내무반을 박차고 들어오는 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라! 너그덜이 거멍이 라면 다 먹었다매? 튀 나와! 지숙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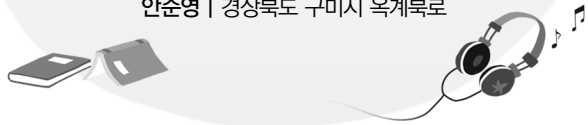
저와 김 상병, 그리고 손가락 들고 텀빈 말년 병장까지 개집 앞에 집합을 했고, 우리는 찬합을 입에 물고 원산폭격을 하고 있던 2소대, 3소대 장병 10여 명과 퍼진 라면을 맛있게 흡입하고 있는 거멍이 원, 투, 쓰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거멍이 원, 투, 쓰리가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찬합을 입에 물고 원산폭격 열차려를 받아야만 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2소대, 3소대 애들은 라면을 먹기도 전에 열차려를 받았지만, 푸하하하! 우리는 퍼진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열차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비록 열차려를 받고 있었지만 입안 가득 남아 있는 퍼진 라면의 진득한 스프 냄새는 군 생활에 한 줄기 은혜와도 같은 서광이었지요.

지금은 퍼진 라면 손도 안댁니다만, 그때는 그게 왜 그리 맛있던지, 옛 생각이 나네요.

나의 연애시대

나이트에서의 인연

안순영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1999년 12월 저의 스무 번째 생일에 친구들과 나이트로 고고! 나이트에서 간단하게 생일파티를 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웨이터가 나타나더니 “누나들~ 부킹부킹~!” 이러면서 다른 남자 손님들과 합석을 시키더군요. 그 남자분들 나이는 26살. 다들 그렇듯이 술 한잔 마시고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고 헤어졌지요. 그렇게 저의 스무 번째 생일은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다.

드디어 2000년이 밝아오고 며칠 지나 저랑 파트너였던 남자분이 전화해서 술 한잔 하러 나오라 하는 거예요. 혼자 나가긴 그렇다고 했더니 친구랑 같이 갈 거니까 너도 친구 데리고 오라더군요. 그래서 만남 2:2. 어느 날처럼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지요.

이야기를 하다가 바다 이야기가 나왔고 다들 한입으로 보러 가자 하면서 출발했죠. 여기는 경북 구미. 가장 가까운 바다도 2시간 정



도 가야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겁도 없었던 것 같네요. 덕분에 바다 구경 잘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파트너의 친구 분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칠었던 나이라 가볍게 폰번호를 알려주고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오빠가 저한테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러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럴 수가, 76년생이 아닌 72년생인

거예요. 전 80년생이었거든요. 많이 당황했죠. 전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고 좀 어색해졌죠.

전 대학 1학년이었고 그 오빠는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오빠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로 학교까지 태워줘, 수업 끝나면 데리러 와, 제가 술이라도 많이 마시는 날이면 안전하게 집까지 태워줘, 그리고 기념일이라고 있는 날이면 잊지 않고 꼭꼭 챙겨주기까지, 이러니 제가 안 반할 수 있나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했면서 전 대학 졸업을 했고 직장생활을 잠깐 하다가 저는 23살, 오빠 31살인 2002년 10월 20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뱃속에 혼수도 넣어가지고 말이지요.

그렇게 결혼한 우리 부부 결혼 13년 차입니다. 각자 자기의 일을 하다가 2년 전부터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으로 스카우트 돼서 왔답니다.

처음 같이 일하던 1년 동안은 매일 싸우면서 일했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부부끼리는 절대 같이 일하면 안 된다는 대표적 본보기였어요. 그 또한 지나가리라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왜 그랬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환상의 콤비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붙어서 일하지만 우리 가게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애들도 이제는 좀 크고 나니 다시 연애시절로 돌아간 듯해요. 우리 부부는 매일 같이 수영도 하러 다니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둘이서만 꼭 영화도 보러 가고 바람도 쐬러 간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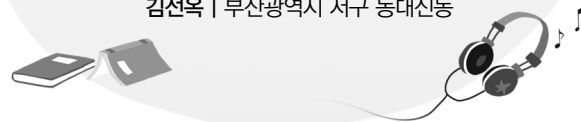
권태기가 지나가니 다시 설레고 남편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고, 연애할 때 설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꼭 남편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처음에 느꼈던 그 든든함으로 평생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일요일엔 편지를

말문을 닫은 아들에게

김선옥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말문을 닫은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홍수야.

네가 2년 동안 혼자 살다가 집에 들어오니 엄마는 맘도 편하고 너무 좋은데 너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구나. 사실, 썩 내켜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잔소리하면 불편하고 싫어할까봐 되도록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열리기만을 8개월가량 기다렸어.

엄마가 처음으로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니?” 물었던 날, “딱히 할 말이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너를 보면서 따지고 보면, 모든 아들이 엄마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겠니? 그래도 그렇지 “엄마, 양말이 없네요,” “오늘 아침 국은 너무 싱거웠어요,” “집에 올 때 막차를 놓쳐서 택시를 탔는데 차비가 엄청 나왔어요,” “엄마, 내 방에 모기가 장난 아니에요”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런 사소한 말조차 삼키는 널 보면 안쓰러운 마음만 가득하다.



홍수야, 스물일곱 살인 너에게 아버지가 잔소리 하는 이유는 앞으로 네가 더 잘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야. 좀 더 좋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만 했던 얘길 반복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네가 말문을 닫아서야 되겠니?

엄마는 아버지랑 생각이 좀 달라서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위험부담이 있는 소규모 창업회사지만 네가 같이 일하는 사람, 배신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아서 대견하단다.

그런데 홍수야, 부모님과 말을 안 하는 너를 보며 엄마는 그런 생각이 든단다. 머지않아 너는 결혼을 할 테고, 결혼하면 너만의 가정 이 생겨 우리하고는 멀어지게 될 텐데, 부모와 아들 사이에 남겨진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너 학교 다닐 때처럼 재잘재잘 재미있게 웃으며 얘기하던 때처럼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걸까?

오늘 아침에도 매일 아침 급하게 출근하던 엄마가 집에 있으면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하고 물어볼 만도 한데 너는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너 할 말만 하고는 행하니 사라지더구나.

홍수야,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진 건지, 답답하다. 배 아파 낳은 아들 잘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우겼는데 지금의 나를 보면, 딱 그 짝이니 입맛조차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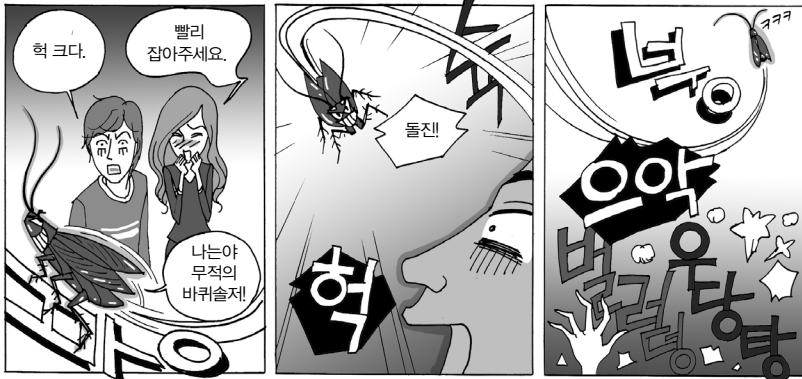
아들아, 요즘은 어느 집 대문에 쓰인 오자성어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개문만복래>. 문을 열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 말처럼, 이 집 대문처럼, 우리 아들의 마음 문도 활짝 열려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엄마의 바람을 이렇게 편지로 전해본단다.

사랑은 여행을 타고~

그림 | 김곡, 우영미

※〈여성시대〉 가족 김금철(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씨의 사연을 각색한 만화입니다.





그렇게 가이드와 고객으로 만나 시작한 우리의 여행은 사계절을 두어 번 지나보내며 지금은 평생의 여행동반자로 행복한 여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연, 참 신기하죠!





부모와 아이의 성

글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트위터 아이디 @suhcs)
일러스트 | 조신애

아이가 자라고 사춘기를 맞으면 부모는 새로운 걱정을 하나 더 갖게 됩니다. 성적인 문제죠. 소위 '야동' 즉 음란물을 보는 것이나 자위행위만 생각해도 부모는 골치가 지끈댁니다.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니 기준을 어디다 뒤편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죠.

그런 부모들에게 저는 무엇보다 사춘기란 단어부터 다시 한 번 살펴 보도록 합니다. 사춘기는 봄 '춘(春)'에 생각할 '사(思)'를 쓰니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나 싶겠지만 여기서 '춘'자는 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위 '춘화', '춘정', '매춘' 할 때의 '춘'입니다. 즉 사춘기란 성적인 것이 자꾸만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성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아이의 두뇌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나고 성적인 환상에도 종종 빠지게 됩니다. 몸에도 이차 성징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변하죠.

과거라면 사춘기가 지나면 바로 결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열다섯이면 성인식을 했고, 춘향이와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던 시점은 이 팔청춘, 즉 열여섯 살입니다. 요즘 같으면 중학교 3학년 나이죠. 남녀 칠세부동석은 옛말이 되고 이성교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모도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청소년기 자녀의 성적 교제를 용납할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몸은 준비되었지만 사회적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성적 잠복기를 장시간 보내야 하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힘듭니다. 부모와의 심한 갈등이나 극단적인 감정기복도 무관한 듯 보이지만 실은 적잖은 정도로 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인 관심은 막기도 어렵지만 막는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부모의 지나친 통제는 아동이 성인기가 되었을 때 성적인 문제를 유발해 건강한 부부관계를 가로막는다는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결과 속이 다른 왜곡된 성 문화를 낳을 수도 있죠. 따라서 아이가 성적인 호기심을 갖고 욕구를 표현할 경우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다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성적 관심은 그 양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사회는 문화적 영향으로 성별 간 차이가 더욱 심합니다. 지금의 엄마들은 성적으로 상당히 억압된 유년기 및 청소년기를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관심을 불결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엄마들이 적지 않고, 비생산적이고 한심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을 비하하고 배제하고 금기시하는 문화를 내면화

하여 무의식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엄마들의 경우 아이가 보여주는 성적인 관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참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거부감을 느끼죠.

특히 어린 시절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입은 여성들은 (이런 분들이 거의 네 명 중 한 명에 달합니다) 아이가 성적인 행동을 하면 매우 당황합니다. 그 전에는 '내 귀여운 아이'로 보았는데 이젠 더 이상 내 아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적인 긴장감이 느껴지고 불편해지면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한 가정 내에 사는 가족, 특히 아이와는 매우 밀접한 접촉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위들이 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발생한 이런 긴장감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기에 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이더라도 몇 달 정도의 적응기를 두고 나름의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상처가 해결되거나 고정관념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전 이대로 그냥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죠. 아이도 엄마가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적당히 조심해서 집에서는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균형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은 물론 최선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타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엄마들에게 아이들의 성 문제가 불편하다면 그것을 그냥 억누르기 전에, 자신의 성 문제를 한 번 고민해볼 것을 권합니다. 내가 가진 성에 대한 가치관은 올바른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지, 혹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왜곡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이나 태도 때문에 성적인 면에서 다시 한 번 뒤틀린 가치관과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부모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뒤틀려있고, 때로는 결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들에게 분명 불행합니다. 성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소중한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즐거움과 휴식,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재산 하나를 아예 갖지 못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자신의 성적인 태도를 돌아보고 나서야 아이에게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한계는 한계대로 인정하고 아이에게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아이를 볼 때 어떤 부모는 세상이 무너진 듯 생각하고, 어떤 부모는 즐겁게 웃으면서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 아이는 도망가거나 속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부모에게 아이는 귀를 열게 됩니다.

모두가 짐작하겠지만 지나친 자위행위는 해롭고, 요즘의 음란물은 과거와는 달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과 '적당함'이란 두 단어는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란 좌충우돌하면서 결국 적당함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자위행위를 하더라도 적당한 빈도로 하고, 질이 낮은 음란물은 피하면서도 성적 호기심은 적당히 충족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우리가 기대하는 아이죠. 부모는 그렇게 아이들이 좌충우돌하는 한켠에 몇 발짝 떨어져 필요한 조언을 하면 됩니다. 아이들도 실은 누군가에게 무척이나 물어보고 의지하고 싶어 하니까요.

나도 모르는 나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일찍 일어나 창을 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바지 매미 우는 소리가 시끄럽더니 어느새 풀벌레 울음 소리로 바뀌었다. 계절을 어찌 용케도 알까? 어쩌면 사람들보다 더 순리를 잘도 읽어내니 놀랍다. 울 여름 땀을 많이 흘렸다. 왜 해마다 여름은 이렇게 더 덥고, 여름 나기가 힘든지. 옛말에 잠도 기운 있어야 자는 거라는데, 더위도 기운 있고 젊어야 견뎌내는가 싶다. 나는 머리 뒤통수 중간에서부터 흐른 땀이 옷을 흠뻑 적신다. 원기가 저하되고 담과 대장의 기능이 약화되어서 열이 머리로 오르는데, 땀 흘리는 만큼 에너지가 빠져 나간단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부종처럼 두껍게 되는 퇴행성관절염도 있고, 무릎의 안쪽, 내연이 아프다.

이 정도인데도 무심하다. 이렇듯 무심한 나의 동생은 자기 몸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듯 한다. 자기 체질을 알아보고, 나쁜 건 절대 먹지 않고 피가 맑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채식을 한 지도 어느새 4년이 되어간다. 어찌 어찌 단식도 하고 8kg가량의 살을 뺐고 혈색이 아주 해맑아 보인다. 아침에 눈뜨면 자리에서 40~50분간 스트레칭을 꼭 하고, 저녁때는 동네 뒷산 둘레를 1시간가량 걷고 나서 목욕하는데 냉온탕을 7번인가. 지켜서 잘한다.

내 동생과 나를 비교해도 한 뼛속의 아롱이다롱이란 말이 맞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쇼핑, 음식, 여행 등의 얘기가 나오면 무심한 내게서도 할 말이 쏟아진다. 만 6년 전 여성시대 10주년 기념으

로 어머니 모시고 처음으로 딸 셋과 유일한 조카딸, 이렇게 3대에 걸친 다섯 식구가 처음으로 거제, 통영, 옥지도, 외도 등을 여행했고, 더 나아가 바다 건너 제일 가까운 후쿠오카까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조카딸이 이제 26살이 되어 어엿한 직장인으로 첫 휴가를 후쿠오카로 다녀온단다.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수다스럽게 기나긴 카톡을 해댔다. 거길 가면 무얼 보고 들르고, 무얼 먹고 마시고 교통편과 마을길 산책은 어떻게 하라는 등, 얼마나 참견을 하고 말이 많은지 나 자신에 대해 새삼 놀랐다. 내게 딸이 있었다면 아마 엄마 노릇 작렬했을 것이다. 사람이 쿨한 척 자기를 잘 아는 듯해도 사실 냉철한 객관화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른다. 나 역시 나를 잘 모를지도 모른다.

8월에 큰 차사고가 났고, 나는 세상에 없을 뻔 했다. 이웃들이 다들 천운이라 했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과 뒤처리하는 남편에게 일임하고, 나는 남편 차를 몰고 MBC로 출근해서 천연덕스럽게 생방송을 했다.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담당 PD는 휴가 중이지, 서경석 씨는 새로 온 지도 며칠 안됐지. 생방송 1시간 남겨두고 못 간다, 사고 났다, 그럴 수 없어서 사고 당시 상황이 수백 번씩 머리에서 계속 맴도는 가운데 방송을 했다.

어릴 때 나는 엄살이 심한 아이였다. 19살 때부터 엄마를 도와 집안을 일으키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먹고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감정 표현이나 엄살이 쪼그라들었다. 그건 일하고 상관이 없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은 일 자체로 아주 송고하며 냉엄하니까. 어찌고저찌고 하는 변명과 사정 얘기 다 쓸데없다는 생각이 45년 세월 동안, 그렇게 굳어졌나 보다. 가을이다. 내 다친 몸도 조금씩 나아지겠지.

참 좋다

서경석 | 여성시대 신입 DJ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내가 요즘 참 좋아하는 여성(양희은 누님)이 부른 노래의 가사다. 이 노랫말처럼 나는 요즘 참 좋다.

내가 살아온 날들만큼이나 긴 세월을 청취자와 함께한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시대>. 처음 DJ 제안이 왔을 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최고 프로그램의 명성에 누가 되진 않을까, 1년 365일 내내 청취자와 함께해야 하는 짹짹 일정을 과연 차질 없이 소화해낼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생길까 않아 고사하기도 여러 번. 하지만 <여성시대>는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첫 방송 하던 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던 그날. 과연 그 편안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느덧 방송 시작 한 달째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젠 그때 그 편안함의 결정적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여성시대> 방송 두 시간을 온전히 채우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이었다. 첫 방송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이야기.’

투박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련된 ‘진심’이라는 것이 녹아 있는 이야기와 함께하니 첫 방송의 긴장감을 날려버릴 수 있었고, 헛갈리는 철자는 어김없이 틀리기 일쑤지만 그래서 더 내 얘기처럼 들

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하루 종일 시달리며 보냈던 어제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고, 들리지 않는 것에 이어 보이지도 않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도 아직은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부족한 잠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려는 하품이 꼭 들어가버렸다.

“당신의 일상은 생각보다 괜찮다.” 얼마 전 출간한 내 에세이 <스물아홉, 마흔둘> 책의 띠지 뒷면에 적혀 있는 글귀다. 참 괜찮은 말인데 막상 이것을 피부로 느끼기는 그리 쉽지 않다.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지만, 넘쳐나는 뉴스들 중에 그리 반가운 소식들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싹은 돌아나오는 법, 조금만 눈길을 돌려 그 싹의 발돋움을 맞이하면 될 터인데 그럴 여유조차 찾지 못함이 우리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듯하다. **어디에선가 움트고 있는 희망의 싹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를 찾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성시대>와 함께하면 가능할 것 같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여성시대>와 함께했으면 한다. <여성시대>에는 거창하진 않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있고 화려하진 않지만 꾸밈없는 진짜 우리 이야기가 가득하니까. **나도 요즘 <여성시대>와 함께하며 그 훈련을 하고 있다.**

양희은 누나가 있어서 참 좋다. 이한재 피디, 서미란 피디, 박금선 작가, 성기에 작가, 고지은 작가, 양명란 작가가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낯선 식구에게 따스한 미소 지어 주시는 여성시대 가족들이 고맙다.

앞으로 여성시대 가족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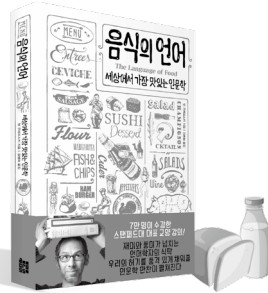
“난 요즘 서경석이 있어 참 좋다.”

《음식의 언어》

음식의 언어로 배우는 역사

글 | 한창완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역사를 공부할 땐 이야기로 이해하면 쉽고 오래 기억된다. 역사 자체가 기록되고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기억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저자는 세계 언어의 흐름을 음식의 흐름과 세계사에서 찾는다.

언어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메뉴판에 쓰인 음식의 단어가 길어질수록 음식 값이 비싸진다고 한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프랑어가 메뉴판에 남아있다고 한다. 이처럼 음식을 표현하는 갖가지 단어에는 수천 년 인류문명의 진보와 동서양의 극적인 만남의 순간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식당 경영과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있음을

알려준다.

스탠퍼드 대학생 7만 명이 수강했다는 인기 과목의 강의 내용을 보면 음식이 존재해 온 역사의 흐름이 결국 언어가 진화해 온 과정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 다양한 뒷이야기가 어원의 근거를 설명해준다.

'토마토 케첩의 라벨을 보고 왜 케첩이 토마토로 만드는데 굳이 토마토 케첩이냐고 질문하는 아이의 문제 제기로 이 책은 시작된다.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의 설명에 따르면 '케첩'이라는 단어가 이미 중국에서 존재해 온 한자말이며 그 어원에 토마토가 숨어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 사실은 '케첩'이라는 음식이 중국음식이었고, 그 주 재료는 생선이었다는 역사

를 흥미롭게 설명한다. 생선을 발효시킨 소스가 이미 중국의 한무제 시절에 넓게 사용되어졌고, 그러한 생선소스를 대항해시대 유럽 상인과 해적들이 다른 무역상품과 함께 가져갔었다고 한다. 유럽본토에서는 소스의 사용과 함께 생선 이외의 다양한 재료들을 발효시켰고, 그 중 제인 오스틴이 즐겨 먹었다는 호두케첩 레시피도 존재했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해진 뒤 저장성을 높여 상품화된 소스가 토마토를 주재료로 한 토마토소스였으며, 그 재료와 맛이 달라졌지만, 소스 이름은 여전히 케첩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데이터화된 고대의 레시피, 백 년 전 온라인 메뉴 컬렉션 1만 개, 현대식 메뉴 6,500건, 요리 가짓수 65만 건, 백만 건의 맛집 리뷰 등 계량 언어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연구한 결과이며, 이를 반증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을 곁들여 설명한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민족들이 문화적 보물이거나 한 것처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요리들의 유래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우리 모두

가 이민자이며, 문화의 경계에서 늘 새로운 문화적 창조를 거듭해 온 성과들이 음식임을 소개한다.

터키라는 칠면조 이름이 전하는 메시지는 16세기 유럽인들이 포르투갈의 무역상 비밀주의 때문에 두 종류의 새 이름을 혼동하게 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결국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국가의 이름과도 연동되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추수감사절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요리인 칠면조 음식에는 참혹한 노예제의 실상과 이민자의 지독한 고난이 숨겨져 있으며, 고향땅의 음식을 새로운 나라에 들여와 그 나라에 맞게 변형시켜온 인류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언어와 문화는 깊은 공통성을, 우리를 인간이 되게끔 해주는 사회적, 인지적 특징을 공유한다고 저자는 덧붙인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 즉 차이에 대한 존중, 공유되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 등이 자비의 조리법에 들어가는 재료이며, 그것이 음식의 언어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주장한다.

댄 주래프스키 지음·어크로스 펴냄



이 많은 멤버십 카드가 바코드 하나에 쏙!



카드 결제와 멤버십 적립을 한장에 원카드 투플레이 IBK-Syrup카드

다양한 멤버십 카드를 원바코드에 담은 새로운 카드
이제 IBK-Syrup카드 하나로 편리함을 누리세요



* 발급대상: 개인(본인) · 발급구분: 신용·체크 · 연회비: 신용(UnionPay 5천원, Master 7천원, 체크(UnionPay 2천))
서비스 제공 조건 등 상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된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당신을
여성시대로 초대합니다

여성시대
양희은 · 서정석입니다

MBC 라디오 매일 아침 9시 5분~11시

서울 95.9 부산 95.9/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91.3 전주 101.7/94.3 마산 98.9
춘천 92.3/88.9 청주 107.1 제주 97.9(경일약)/97.1(삼대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92.7 충주 96.1 삼척 101.5/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955호 (2015.04.16) CP043 게시기간 : 2016.04.15

· 이 안내장은 2015.04.16 현재 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5.05.12) 이후 5년 이상 연속 출사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카드사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회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카드 신규 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전발령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객에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부터 매월 개별 고지 해드립니다. ④ 개별 고지 방법: 카드대금정기서,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 하나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하는 여(금융감독원)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장우원(02)에 본인의 사용등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사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장처리규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국민안(☎1332) IBK기업은행: ☎800-800-010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유흥장려 위반사항이나 개인이 필요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00, e-mail:ibkethics@ibk.co.kr)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회 이자를 (최저 연 16.5%~최고 연 24.0%)은 정성 이자를 및 연회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